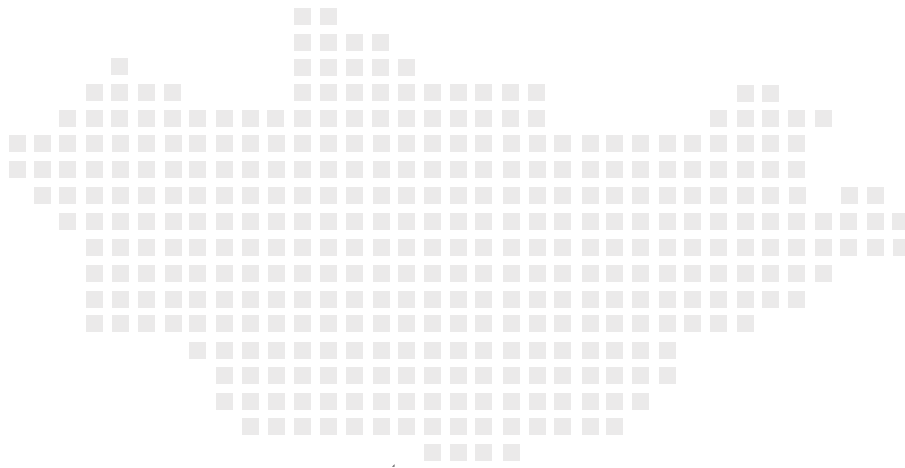




The 1st Korea-Mongolia Forum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Mongolian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December 14, 2010

VENUE
Video Conference Room
7th Fl. Graduate School Bldg.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Hosted by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Asia-Pacific Research Center (APRC)

December 14, 2010 (Tuesday)

13:00-13:20 Opening Ceremony

Welcoming Address

Eom, Gu Ho (Director, Asia-Pacific Research Center)

13:20-15:20 Session I

The Geopolitics in East Asia and Prospects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Chair:

Eom, Gu Ho (Director, Asia-Pacific Research Center)

Papers:

- ▶ Battur, Jamiyan (Professor, Dept. of Int'l Relation, State Univ. of Mongolia)
"Mongolia's Geopolitical Interests and Republic of Korea"
- ▶ Oyunchimeg, Magvan (Vice Chairperson, Mongolian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Challenging Country, Mongolia: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 ▶ Lee, Jae Young (Head of Europe Tea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Prospects for Developmen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in the 21st Century"

Discussants:

- ▶ Bae, Jung-Ho (Director, Cente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 Lee, Sang Jun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Kukmin Univ.)
- ▶ Kim, Young J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

15:40-17:30 Session II

Mutual Perceptions of Korea and Mongolia and Socio-cultural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Chair:

Ko, Jae Nam (Professor,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Papers:

- ▶ Lee, Pyung-Rae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n Intellectuals' Perceptions of Mongolia and Prospects for the Korea-Mongolia Relations"
- ▶ Sainbilegt, Dashdorj (Professor, Dept. of Korean Studies, State University of Mongolia)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Educational Cooperation between Mongolia and Korea"
- ▶ Bazarragchaa, Damba
"MAGIKO(Mongolian Association of Graduates in Korea): Its History, Activities, and Prospects"

Discussants:

- ▶ Ki, Kye Hyung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
- ▶ Hwang, Young Sam (Institute of Central Asi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 Choi, Jung Hyun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

17:30-17:40 Closing Ceremony

18:00-20:00 Dinner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Mongoli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Contents

Session I

The Geopolitics in East Asia and Prospects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 ▶ Battur, Jamiyan / Mongolia's Geopolitical Interests and Republic of Korea 7
- ▶ Oyunchimeg, Magvan / Challenging Country, Mongolia: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13
- ▶ Lee, Jae Young / Prospects for Developmen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in the 21st Century 29

Session II

Mutual Perceptions of Korea and Mongolia and Socio-cultural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 ▶ Lee, Pyung-Rae / Korean Intellectuals' Perceptions of Mongolia and
Prospects for the Korea-Mongolia Relations 61
- ▶ Sainbilegt, Dashdorj /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Educational Cooperation
between Mongolia and Korea 71
- ▶ Bazarragchaa, Damba / MAGIKO(Mongolian Association of Graduates
in Korea): Its History, Activities, and Prospects 83

Mongolia's Geopolitical Interests and Republic of Korea

제. 바트트르 (몽골국립대학 교수)

1. 대한민국 : 몽골의 완충지대

몽골은 강대국간의 끼어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며, 각종 정책추진간 이 강대국의 영향을 감안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이익을 보호할때 필연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제 3 국의 지지 및 협력과 재정적 지원이 “물과 공기” 처럼 필요하기 때문에, “제 3 국 이웃정책”이라는 대외정책의 용어가 발생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볼때 대한민국은 분명한 몽골의 “제 3 국 이웃” 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국제관계에서 “완충지대”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어떤 국가, 지역이 다른 특정한 마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다른 편 국가와 직접적인 국경을 닿고 있거나 혹은 가까운 위치, 지역에 존재하여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 말을 몽골어로는 “방패국가”라고도 표현한다. 어떤 나라들은 강대국가들 사이에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대국가들간의 마찰을 방지시키기도 하고, 또한 그러면서도 강대국들의 외교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한다.

그러나 완충국가에서는 단지 지리적, 국경적 이해관계 뿐 아니라 강대국의 영역 특히 경제적인 영역에 포함되어, 무역, 투자 등의 분야에서 있어서의 존립관계가 형성됨으로써 특정 강대국의 일방적인 영향력 행사로부터 보호받기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주제와 관련한 대한민국은 필수불가결하게 동북아시아에서 몽골의 완충지역 역할을 해왔으며, 차후에도 이런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대한민국 : 몽골을 지원하는 우방

과도기(1990 민주화 이후)라고 정의한 지난 세월동안 경제적 곤란은 많은 몽골가정에 과도하게 투영되었다. 지금까지 실업과 빈곤은 몽골을 뒤덮은 사회적 이슈로서 계속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지난 20 년동안 많은 몽골인들은 생계보전 및 향상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적 부유국가에 진출, 각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한국은 몽골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수 많은 몽골인들을 노동자로 받아들여 왔으며, 이들이 몽골로 송금한 결과 지난 20 년동안의 몽골경제에 많은 힘이 되어 주어왔고, 빈곤퇴치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주택확장사업에도 가장 큰 투자자가 되었다. 더우기 청년층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사업방향은 인본주의적 가치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매우 큰 원조이다. 한국으로부터의 송금액 흐름의 규모가 매우 커짐에 따라 몽골내 은행들의 각 지점들이 한국에 진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몽골 재무부 및 관련 부서에 대한 교육 실시와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원조를 제공, 많은 몽골의 상업 및 비즈니스 경영능력을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다.

과도기의 어려운 시기를 겪던 시기에 한국의 조치를 우리는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산개발, 대형제조공장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한국의 우수 대기업들이 참여하여, 함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우방적 관계를 강화하여 경제적 그리고 실질적 협력을 현실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대신 매일 민족이 같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만 하고 있었다면 초단위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의 발전속도에 뒤처지고 말것이다. 우방적 관계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어려웠던 지난 시간들을 잊지말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대할 때, 국가적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진리는 단지 사람들간 뿐 아니라 국가적 관계에서도 크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몽골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경제적 발전기회였던 지난 20 년동안 호주,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지난 20 년동안 과연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가. 몇 명의 학생이 연구하고, 얼마나 되는 몽골국민들을 받아주었는가. 몽골에 얼마나 많은 원조를 제공하였는가. 비자까지도 상당히 긴 기간으로 우리에게 우방인 한국은 열어주지 않았는가.

단지 몽골기술대학만 볼때에도 올해에만 50명 이상의 박사과정 유학생이 장학생으로서 한국에 유학중에 있다. 이들은 몽골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광산, 도로, 건축, 정보시스템, 에너지, 통신, 컴퓨터기술 등의 분야에서 연구중에 있다. 또한 몽골국립대학은 서울대학 유학생 출신의 수십명 교수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산림, 생물, 경제, 정보기술, 화학, 재료분야 등 각자의 전문분야에 대해 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모든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한국인들에 대한 대접이 그에 상응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한민국 : 몽골의 발전모델

몽골은 오늘날의 통계와 연구를 기초해 볼때, 미래에 대한 발전모델이 명확하지 않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라는 배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어디로 정박해야 할지 모르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발전에 도착하기 위한 뚜렷하고 명확한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민주주의를 추진함에 있어 건강 및 교육분야를 세계 수준에 도달시킨 한국을 보며 이 국가를 통해 우리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몽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남한이 10-20년전에 해결했던 것들이다. 대중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으며, 수출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교통질서 준수의식 정착, 식품안전시스템의 도입 등 최소한의 경험에 대한 부분이라도 적용할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경험을 그냥 듣고 버리는 것이 아닌 모두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프로젝트로 승화시키고, 주서울몽골대사관에 우수한 직원을 배치시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용하고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남한의 발전과 대중민주주의, 국민개발의 경험 등 정부의 정책적 노하우를 우리는 연구하고 추진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험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이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사건과 갈등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양국의 관계에 흠을 내리는 음모를 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이용해 크게 확대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서는 대면질의 또는 영상회의를 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일부 명확한 모략과 허구성 뉴스를 확산시키는 행위는 양국의 관계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다.

앞에서 말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과거 가정, 친척에서 버려져 혼자 생존해가던 몽골의 어려운 시절, 원조를 해준 국가는 사실 한국 외에 없었다. 단지 한국에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사업과 무역을 하였고, 전문가들이 양성되었고, 치료를 배우는 등을 모두 해야하면 실로 큰 규모였다. 또한 일반 국민들간의 관계는 양 국가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양국관계는 몽골의 신흥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역사를 개척하도록 하게 한 특별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이 토양위에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어떤 사업으로 확대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양국 정부의 어깨위에 직접적으로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의 정부는 금년 20 주년에 이르는 목표 및 해야할 사업을 보다 열린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수준의 관계로 전진, 발전시켜 실질적 협력관계로 승화시킬 시기가 되었다.

4. “짜을 찾던 시간” 을 넘어 “파트너쉽”으로

작년 20 년을 한마디로 평가할 때, “짜을 찾던 시간” 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국간 관계는 특정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된 호기심 또는 다소 이상주의적 시각을 기초로 한 항상 긍정적이고 친밀한 감정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런 분위기를 기반으로 한 친근한 사건들 또한 적잖게 발생해 왔다.

애초부터 여러 해 동안 양국 상호간에 대한 나쁜 감정적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향상이 급속도로 진행되지 않았겠는가 생각되며, 특히 역사, 사회과학분야에서 해온 연구성과적 측면에서 볼 때 지난 20 년간에 상당수 학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끌어난 문제들 중 하나가 양국간의 공통점, 비슷한 특성들에 대한 논의들이라 말할 수 있다. 실례로 양국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태어났을 때 존재하는 엉덩이의 푸른 반점을 들 수 있으며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나 일부 어휘의 경우 양국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제법 존재한다. 몽골어로 “아와”를 한국어로는 “아빠”, “인두”는 양국이 함께 사용하며, “바롱탈”은 “바른쪽”, “으른죽”은 “오른쪽”으로 사용하는 등 어휘적 일치성 뿐 아니라 양국의 언어적 구조는 “우랄-알타이 언어” 군에 속하기 때문에 비교적 유사한 편에 속한다. 한국의 “고려사” 등의 역사사료를 보면 몽골-고려간 관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양국 대중의 생활 속에 공통적으로 음주가무 문화가 널리 퍼져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등 역사학적으로

양국간의 공통점 찾기 노력은 지난 20 년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역사와 사회과학이라 함은 대중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회과학분야로서 앞에서 말한 최근의 양국간 친밀한 감정은 이런 연구결과에서도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난 20 년 동안을 평가할 때 몽골 및 한국 양국 모두에서 상호간의 동질성을 찾는 즉, “짜을 찾는 시기” 라고 평가할 수 있다.

5.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의 20 년의 양국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점차 떠오르고 있다.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축적되어온 현재의 상황을 되돌아 봐야 한다. 정부기관, 그 중에서도 양국 외교부 간 사용해온 공식용어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공식용어들은 상징성과 함께 일반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국이 현재의 양국간 관계에 대하여 “좋은 이웃, 상호 보완관계”라는 공식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양국 관계에서 검토해 본다면 “좋은 제 3 이웃국가” 라는 용어가 보다 적합하다. “상호간의 보완협력” 이란 용어는 대체로 불분명한 관계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양국은 이 수준을 넘어서 있으며, “정확히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상호 보완할 것인가? 어느 정도로?” 등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가. 장차 몽골에 있는 광물자원 분야에서 한국과 어떤 방향으로 협력해 나갈 것인가 하는 상호이익과 결부된 담화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불분명한 즉 한국의 실질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는 수준의 대화노력은 높은 수준 즉 “파트너쉽” 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나. 양국간의 관계를 가시적인 새로운 수준으로 나아갈 때,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들 또한 학문적 범위와 수준을 향상시켜 양국간 협력의 성과를 보다 생산적인 형태로 이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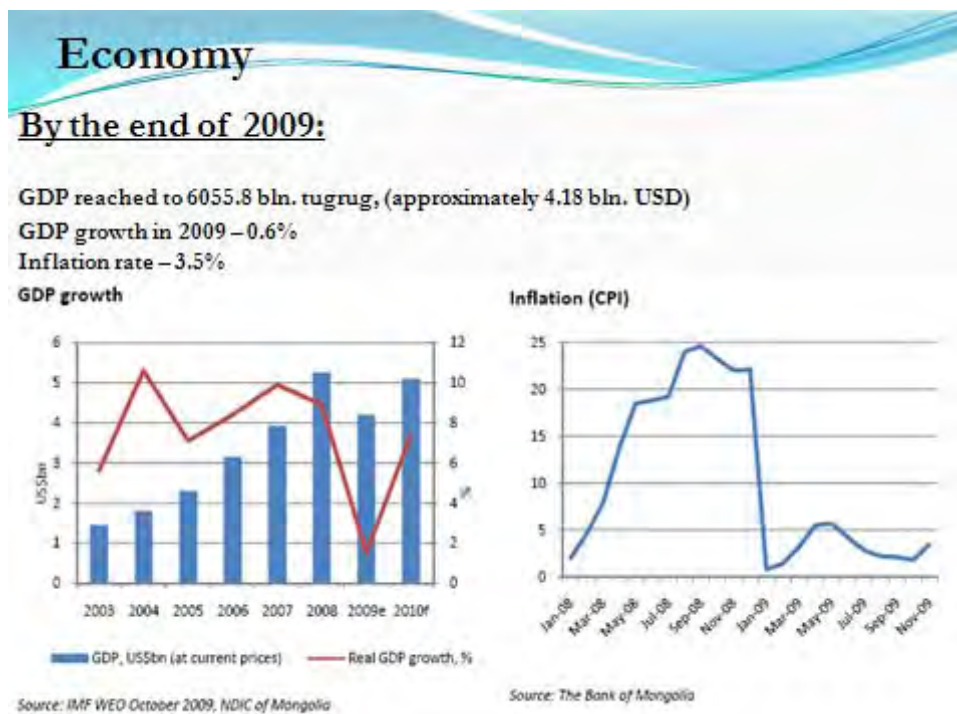
다. 이런 선상에서 양국관계에서의 동반발전 즉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보다 발전적인 분야를 찾아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소견에서 볼 때, 그 무엇보다도 과학분야의 협력이 “윈 윈” 하며 상호이익에 부합되고 동반발전의 길에 가장 현실적인 분야가 아닐까 한다. 과학분야의 협력 확대는,

- 이는 국가 및 개인, 그 어느 쪽에서도 모두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 우수한 청년들에게 미래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선두적인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 양국의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은
물론,
- 몽골의 입장에서 볼 때 몽골의 과학수준을 세계수준에 근접시켜 국가발전의 중요한
추진역량을 갖추게 되고,
- 또한 아웃소싱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재정보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협력재단”의 창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과학기술협력재단의 창설은 몽골의 과학수준을 더욱 높은 단계로 격상시킴은 물론
지식기반 경제시스템을 조직하는 토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연후에야 몽골의 입장에서 한국이 어떤 중요성이 있는 나라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미래의 양국 관계는 상호 이해가 일치되는 지점을 찾아 이를 중심으로 협력방향을
통합 발전시키고, 공식성명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프로젝트 및 계획을 추진을 통해 이루고자
한 결과물들의 실질적인 창출을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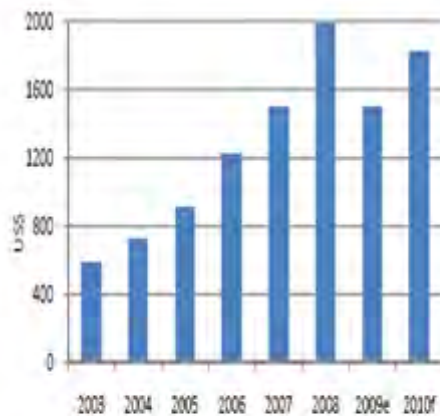
Economic Outlook (1)

Main economic indicators	2007	2008	2009
GDP real growth /%/	10.2	8.9	0.6
GDP per capita /USD/	1491	1960	1500
Foreign Trade Balance /mln USD/	57	-691	-183
Export /mln USD/	1951	2532	1830
Import /mln USD/	2003	3129	2013
State Budget balance /bln MNT/	133.3	-305.7	...
Unemployment /%/	2.8	2.8	...
Foreign currency real reserves /mln USD/	975	637	822.1
Inflation /%/	14.4	28.7	3.6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World Bank Report,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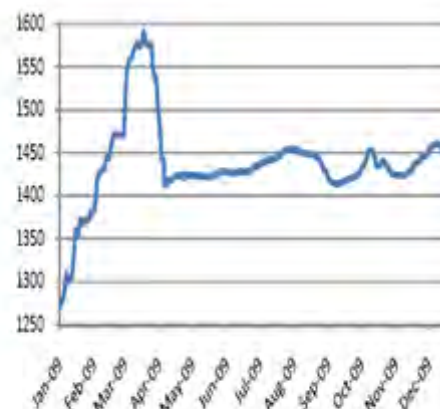
Economic indicators of Mongolia

GDP per cap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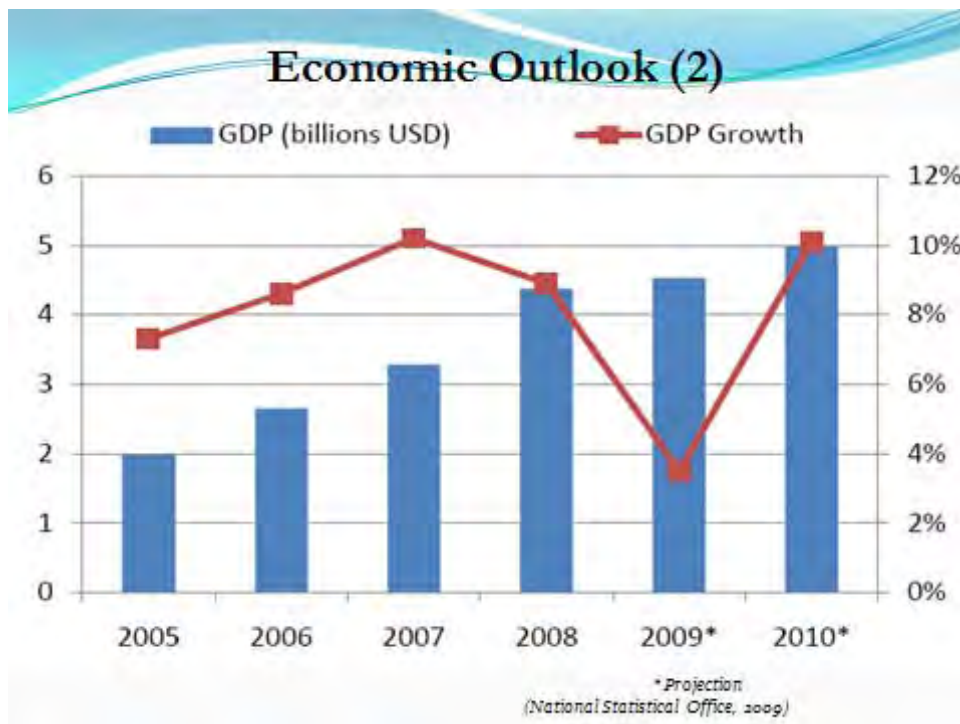


Source: IMF, Eurasia Capital estimates

Exchange rate (MNT/US\$)



Source: The Bank of Mongolia



Economic Outlook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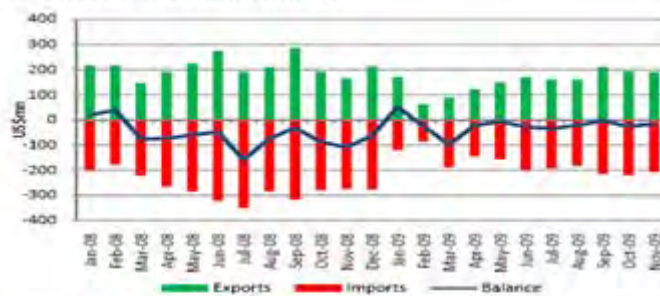
Institution	Inflation Forecast				GDP, real growth (%)					
	2009	2010	2011	201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The Government of Mongolia	9.9	9.9	-	-	2.75	7	-	-	-	-
IMF	9.6	7	5.5	5.5	2.75	4.3	6	11.3	-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	-	-	-2	9.5	10	11	11.8	12

Institution	Rating	Inflation Forecast		GDP, real growth (%)	
		2009	2009	2010	2010
Moody's Investors Service	Ba2	7	5	1	4
Fitch Ratings	B	9	6	2	4.5

Trade

- Foreign trade turnover equaled to over 4033.9 million USD in 2009, of which

Exports and Imports (monthly)



Sourc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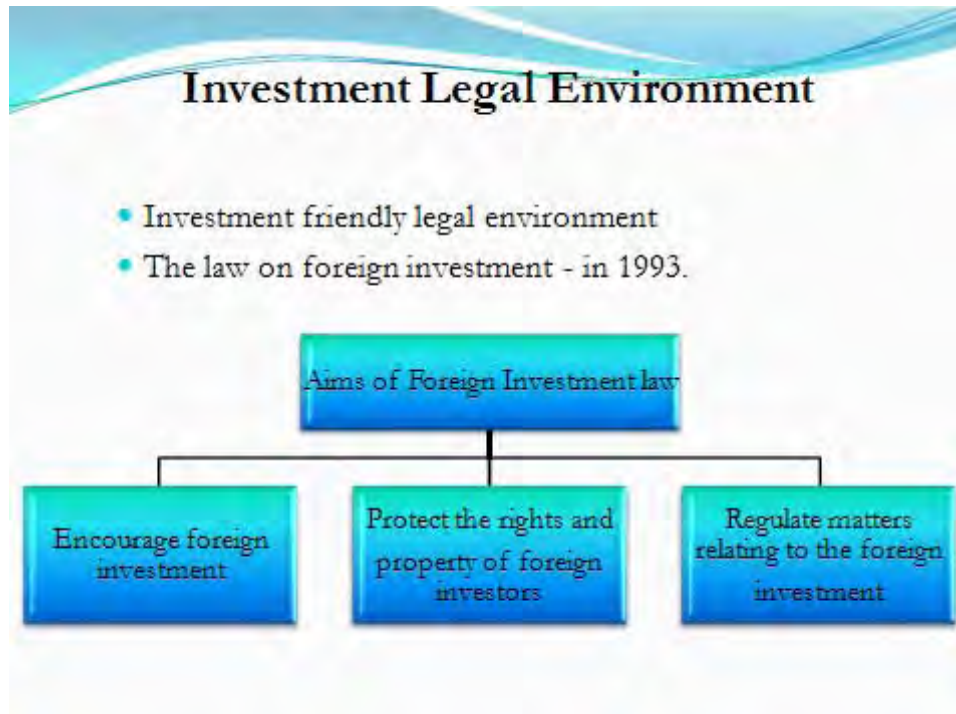
Exports comprised
1902.6 million USD

Imports comprised
2131.3 million USD

The total external trade
balance was a deficit
of 228.7 million USD

- No import limitation
- 5 percent tax for all imported goods
- No export taxes except few i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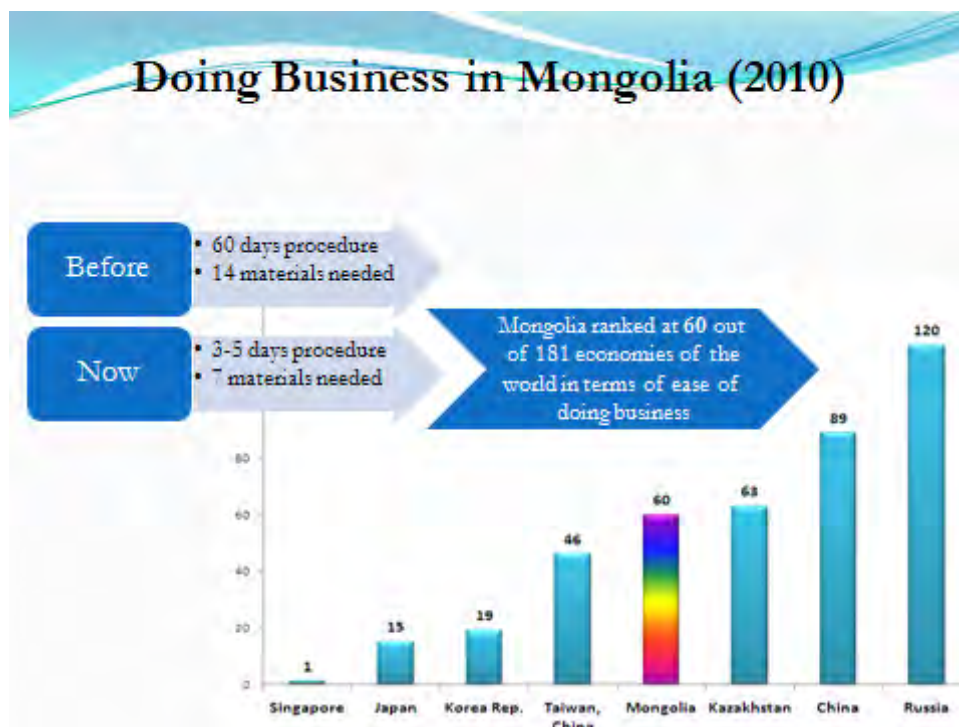
- As of September 2010:
- Mongolia traded with 122 countrie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total external trade turnover reached 4,273.9 mln.US dollars, of which exports made up 2,025.6 mln.US dollars and import made up 2,248.3 mln.US dollars.
- External trade balance in the first 9 months of 2010 showed a deficit of 222.6 mln.US dollars increasing 32.1 mln.US dollars or 16.9 percent against the same period of 2009.
- In the first 9 months of 2010, total external trade turnover increased by 1,495.8 mln.US dollars or 53.8 percent, of which exports up by 731.8 mln.US dollars or 56.6 percent, and imports up by 764.0 mln.US dollars or 51.5 percent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same period of the previous year.





Law of Mongolia on Conces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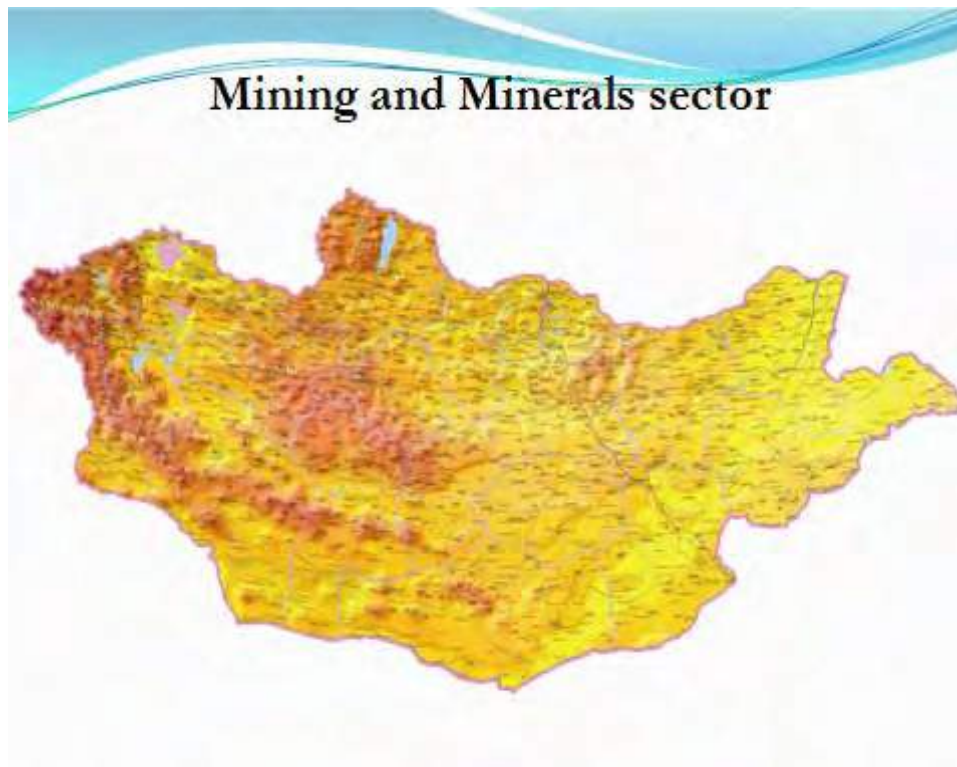
- Law on Concessions of Mongolia (PPP) approved on 28 January, 2010.
 - puts state and local properties into economic utilization
 - vast business opportunities for investors
 - the list of concession items is approved by the state and local administrative bodies
 - decisions shall be made whether to finance from state fund, to make a guarantee, to organize a tender or to conclude a direct agreement
 - Foreign legal entities or their consortiums may submit an unsolicited proposal to enter into a concession agreement



Doing Business

Ease of...	Doing Business 2010 rank	Doing Business 2009 rank	Change in rank
Doing Business	60	56	-4
Starting a Business	78	61	-17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03	104	+1
Employing Workers	44	49	+5
Registering Property	25	20	-5
Getting Credit	71	68	-3
Protecting Investors	27	25	-2
Paying Taxes	69	87	+18
Trading Across Borders	155	156	+1
Enforcing Contracts	36	35	-1
Closing a Business	110	11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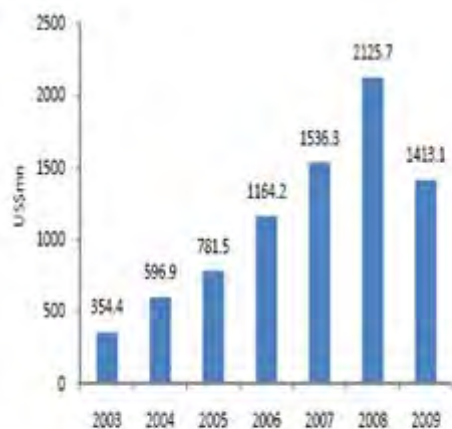
Mining

Large strategic deposits		
Deposit name	Mineral type	Reserves
Tavan tolgoi	Coal	6 bn tonnes
Narain Sukhait	Coal	125.5 mn tonnes
Baganuur	Brown coal	600 mn tonnes
Shivee Ovoo	Brown coal	646.2 mn tonnes
Mardai	Uranium	924.6 thousand tonnes 0.119% U ₃ O ₈
Dornot	Uranium	16.5 mn tonnes 0.175% U ₃ O ₈
Gurvanbulag	Uranium	10.6 mn tonnes
Tumurtol	Iron ore	229.3 mn tonnes 51.15% Fe
Oyu Tolgoi	Copper, molybdenum	2300 mn tonnes 1.16% Cu, 0.35 gram/tonne Au
Tsagaan Suvarga	Copper, molybdenum	10.64 mn tonnes oxide 0.42% Cu, 0.011% Mo
		240.1 mn tonnes sulphat 0.53% Cu, 0.018% Mo
Erdenet	Copper, molybdenum	1200 mn tonnes 0.51% Cu, 0.012% Mo
Burenkhan	Phosphoryte	192.24 mn tonnes
Boroo	Gold	24.523 thousand tonnes 1.6 gram/tonne Au
Tumurtei	Zinc, lead	7.7 mn tonnes 11.5% Zn
Asgat	Silver	6.4 mn tonnes, 351.08 gram/tonne Ag

Source: Laws of Mongo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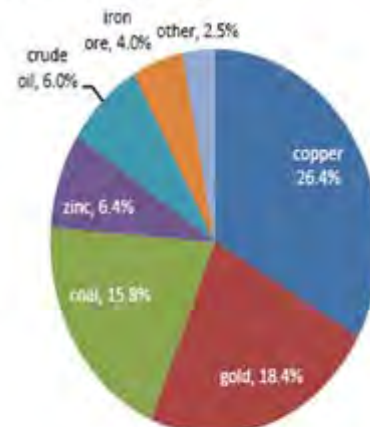
Minerals exports

Minerals exports



Sourc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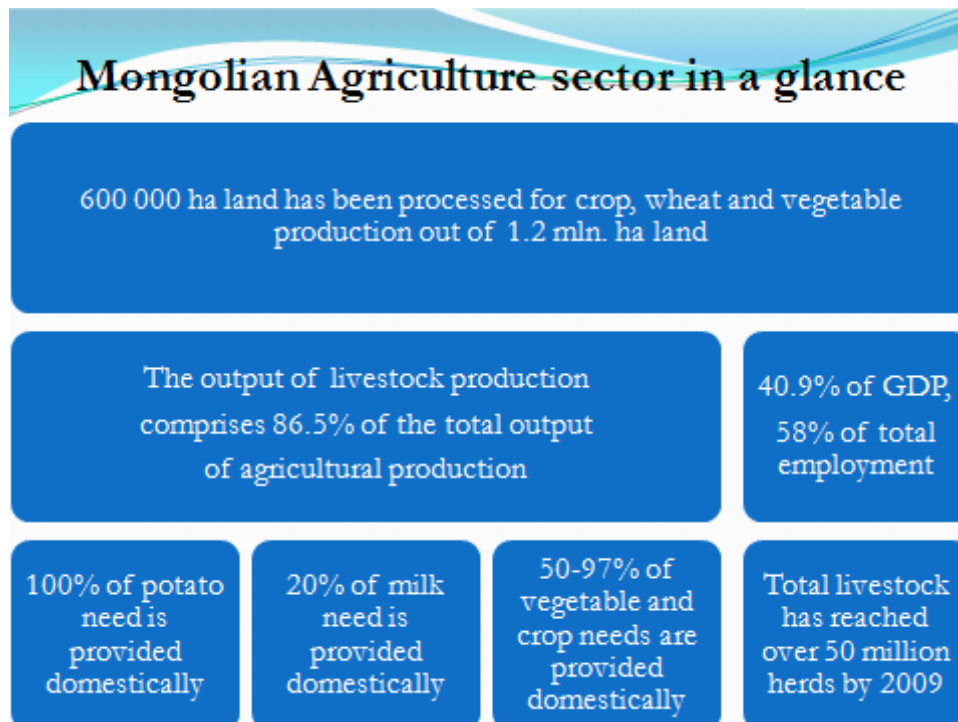
Mineral exports breakdown
(2009, % of mineral exports)



Sourc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Agriculture sector





Registered FDI into Mongolia by sector /South Korea/ (1000 USD)

N.	Sectors	%	2007	2008	2009	2010.09.30
1	Trade and catering	47.14	13788.05	34,226.89	19,262.77	12,773.32
2	Others	19.36	7493.022	787.33	834.93	102.50
3	Geology, mining, exploration	11.58	502.695	3,450.00	4,209.43	2,007.84
4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4.78	646.2	1,228.57	310.80	125.00
5	Engineering, construction materials production	3.28	13.1	493.54	2502.56	
6	Light industry	2.89				
7	Transportation	2.55		164.13		
8	Culture, education, science, printing	2.52	16		3,397.00	
9	Tourism	1.68	57.1	786.01	180.00	

Registered FDI into Mongolia by sector /South Korea/ (1000 USD)

N.	Sectors	%	2007	2008	2009	2010.09. 30
10	Jewelry, souvenir	0.87	70			
11	Agriculture, animal husbandry	0.96			414.15	363.36
12	Healthcare, beauty	0.58		91.00	250.12	
13	Banking and financial activities	0.52	405.213	392.15	312.21	
14	Furniture wooden products	0.50				
15	Community services	0.25		49.80		
16	Food production	0.24		96.00		
17	Energy	0.20				
18	Production of home appliances	0.04				

Registered FDI into Mongolia by sector /South Korea/ (1000 USD)

N.	Sectors	%	2007	2008	2009	2010.09. 30
19	Animal raw materials processing	0.02				
20	Production of electronic appliances	0.02				
	TOTAL	100	22,991.38	41,765.41	31,673.98	15,37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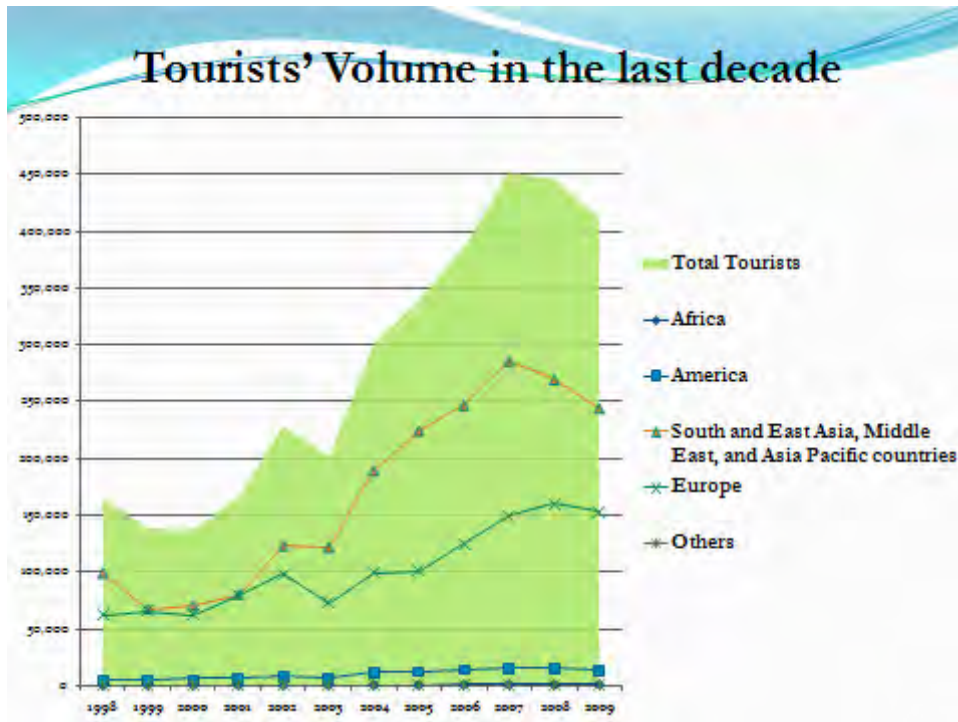
Number of FDI companies by sector /South Korea/

N.	Sectors	%	2007	2008	2009	2010.09.30
1	Trade and catering	67.11	317	295	102	81
2	Others	15.46	3		3	1
3	Tourism	5.15	3	5		
4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1.65	3	2	2	1
5	Transportation	1.55				
6	Light industry	1.34				
7	Geology, mining, exploration	1.39	3		1	
8	Engineering, construction materials production	1.34	1		2	
9	Healthcare, beauty	1.13				
10	Culture, education, science, printing	0.72				

Number of FDI companies by sector /South Korea/

N.	Sectors	%	2007	2008	2009	2010.09.30
11	Community services	0.67				
12	Agriculture, animal husbandry	0.67			1	1
13	Furniture wooden products	0.52				
14	Food production	0.46				
15	Banking and financial activities	0.31	2		2	
16	Production of home appliances	0.21				
17	Jewelry, souvenir	0.15				
18	Agriculture, animal husbandry	0.05				
19	Energy	0.05				
20	Production of electronic appliances	0.05				
	TOTAL	100	332	302	113	84





Tourists' major destinations in Mongolia



Ulaanbaatar



Gobi



Karakorum



Khuvsgul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Mongolian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MNCCI's building, Khan-Uul district,
M. Gandhi street, Ulaanbaatar-17011, Mongolia
UB Post-101011001
Tel: 976-11-327176/312501
Fax: 976-11-324620
E-mail: chamber@mongolchamber.mn
Website: www.mongolchamber.mn

21세기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I. 몽골의 전략적 가치

한국은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해 국제공조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면서 아시아 중견국가로서 역내 주요 이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고,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역내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우선 아시아가 한국 교역의 50.5%, 해외투자의 49.8%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 및 투자 협력파트너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점에 기인한다.¹⁾ 또한 중국, 인도 등 브릭스(BRICs) 중심의 개도권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세계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빠른 속도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던 몽골과 중앙아시아 등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몽골과의 획기적인 경제협력 확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몽골은 세계 주요국들의 전략적 관심이 집중되는 곳으로 변모하면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몽골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 몽골이 1992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장경제 체제전환과 더불어 기존의 일방적인 대러시아 의존 정책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인 대외정책에 기반한 전방위 실용외교를 구사하면서 몽골의 독자적인 국제적 위상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거대국가에 둘러 쌓여있는 몽골이 소위 ‘제3의 이웃’ 정책을 구사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전방위 협력(Multi-Vector)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몽골에 대해 특히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국가 등이 높은 관심을 가지면서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²⁾

둘째, 최근 몽골에서 새로운 대규모 광물산지들이 발견되면서 세계 각국이 몽골의 자원개발에 앞 다투어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몽골은 N.바가반디 전(前)대통령이 “금덩이를 깔고 앉아 굶고 있는 딱한 처지”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지하자원을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新아시아 외교구상의 지역별 경제협력 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발주 용역보고서.

2) 한국, 일본, 유럽국가들이 몽골 진출을 확대하고, 광물자원이 부족한 중국 역시 대몽골 협력을 강화하는 속에서 러시아도 기존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광물 및 에너지자원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³⁾ 예컨대 몽골은 6,000개 이상의 광물자원 매장지에 석탄, 구리, 금, 우라늄, 철광석, 아연, 텅스텐, 몰리브덴, 인광 등 80종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기준 광업은 몽골 GDP의 28.2%, 총산업생산의 64.6%, 수출의 55%를 차지하고, FDI의 56.3%가 집중되어 있는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몽골에는 최소 1억 톤의 석유가 매장된 20-30군데의 유전이 있으며, 외국의 탐사기관들은 향후 몽골의 석유생산이 매우 유망한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몽골은 신실크로드 시대에 만주횡단철도(TMR),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유럽~코카서스~아시아(TRACECA) 수송로 등을 통해 좁게는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몽골의 서부 국경과 카자흐스탄의 동부 국경은 28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의 역동적인 발전과 물류망 구축사업의 진전은 향후 몽골이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운송·교통의 교차지인 몽골은 중앙아시아 지역과 더불어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Iron Silkroad) 구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축이기도 하다. 앞으로 러시아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북극항로가 개설될 경우 몽골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송 인프라의 취약성으로 인해 제약받고 있는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넷째, 몽골은 동유럽과 견줄 정도로 성공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과 시장경제 체제전환을 이룩한 국가로 평가받으면서 매력적인 진출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정치적 권한과 자유 수준을 연구하는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 따르면, 2008년 몽골은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평가되었고, 몽골의 민주주의 정도는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투자매력도에 있어서도 몽골은 인도네시아, 터키, 베트남, 필리핀 및 스리랑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 특히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 광물자원 외에도 풍부한 농축산업 원료,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 수혜국을 활용한 유리한 수출기회, 아시아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비용, 그리고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인구구성비⁵⁾ 등으로 인해 유리한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망한 진출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들어와서 몽골의 국제정치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

3) 아직도 몽골 국민의 상당수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실제 몽골은 일인당으로 환산하면 가축이나, 구리, 금, 석탄, 우라늄과 같은 유용광물, 그리고 담수 등 중요한 천연자원 보유량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이다.

4) Галина Сергеевна Яскина, Россия-Монголия-Китай: Проблем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реодоление противоречий,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экономики, 2009, p. 11.

5) 몽골은 35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에 달하고, 영어 또는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 많은 편이다.

운데 한국에 대해서도 몽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몽골은 장차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 역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중국 간의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대몽골 경제협력 확대는 '정서적으로' 반도국가의 테두리를 벗어나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에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몽골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몽골은 한국과 러시아의 시베리아지역 및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⁶⁾

뿐만 아니라 특히 저개발국인 몽골 개발에 대한 참여는 앞으로 한국이 동북아시아 개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미개발된 상태에 있고, 중국의 동북3성은 연안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극동지역도 서부지역에 비해 덜 개발되어 있고, 몽골도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몽골을 비롯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국의 개발은 다자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이 몽골의 자원개발과 기타 협력 사업에 성공할 경우, 그 자체 효과도 크겠지만 동북아개발에서 영향력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⁷⁾

이 외에도 몽골은 풍부한 농·목축업 국가로서 농업협력이 유망하며, 역사·언어·문화적으로 중앙아시아와 함께 미래 한국의 식량안보, 에너지자원안보의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광물자원 수입 면에서 몽골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제2의 '호주'가 되어 매년 약 140억 달러가 넘는 광물자원을 한국이 몽골에서 수입할 가능성도 있다.⁸⁾ 따라서 한국의 식량안보, 자원안보, 물류거점의 파트너로서 매력적인 협력대상국인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앙아시아까지 협력을 확대할 경우 '신아시아 외교'의 지평이 현저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한국은 몽골과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문화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여,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몽골에 확산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드높이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II. 몽골의 경제와 국가발전전략

1. 몽골의 경제 현황

1990년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시작한 몽골은 다른 체제전환 국가들에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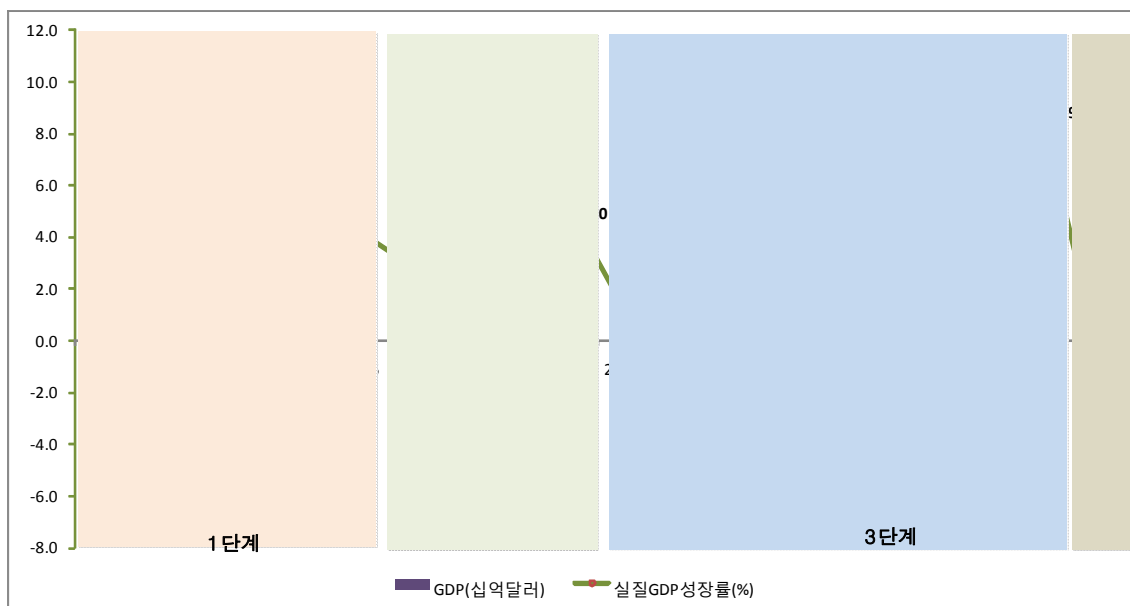
6) 몽골은 러시아 및 중국 국경과 접한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7) 강임호(2010), 「몽골의 발전전략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간담회 발표자료.

8) D. Shurkhuu(2010), 「Perception and Strategies on Energy Security: The Case of Mongolia and ROK」, 세미나 발표자료, 서울, 2010. 4. 19.

비교적 개혁개방 수준이 높았으며, 거시경제 안정이 빠르게 정착되었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0년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몽골 경제의 발전과정은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경제 혼란을 겪으면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했던 ‘체제전환 초기’(1990~1995년), 지속적인 경제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연평균 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경제 구조조정 가속기’(1996~1999년), 물가안정, 산업생산 및 대외무역의 지속적인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된 ‘거시경제안정기’(2000~2008년 말),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 침체를 겪고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위기 및 회복기’(2008년 말~현재)가 그것이다.

<그림 1> 몽골의 거시경제동향 (1990~2009)



자료: Global Insight.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5~20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약 9%에 이르던 몽골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큰 타격을 받으면서, 2009년 경제성장률이 0.5%에 그치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국제 구리가격⁹⁾ 및 캐시미어 가격 하락과 광물 부문의 수출과 투자 감소, 건설경기의 위축, 무역수지 적자는 몽골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 정부는 불가피하게 국제금융기관들과 러시아, 중국 및 다른 국가들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2009년 4월 1일 IMF와 2억 2,400만 달러의 대기성차관협정(Stand-by-Agreement)을 체결하여 금융지원을 받게 되었다.

9) 2008년 4월 1톤당 8,685달러 93센트였던 구리가격이 2009년 1월 3,072달러 98센트로 무려 2.8배나 하락한 결과 2009년 2월 몽골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45.9%나 감소하였다.

<표 1> 몽골의 최근 거시경제지표

항목	2005	2006	2007	2008	2009
명목 GDP(십억 달러)	2.34	3.20	4.11	5.16	4.21
실질 GDP 증가율(%)	7.25	8.56	10.22	8.90	0.50
1인당 GDP(달러)	916.1	1,256.2	1,572.3	2,081.4	1,690.3
소비자물가상승률(%)	12.72	5.10	9.05	25.06	8.50
경상수지(십억달러)	0.03	0.222	0.265	-0.687	-0.291
재정수지(GDP대비%)	2.6	3.3	2.9	-4.9	-5.4
외채(10억달러)	1.31	1.41	1.53	1.61	1.94
외환보유고(10억달러)	0.33	0.71	1.00	0.64	1.25
환율(투그릭/달러)	1,221.0	1,165.0	1,170.0	1,267.5	1442.8

자료: Globla Insight(2010.5), ADB(2010.4), IMF, Worldbank database,
몽골 상공회의소.

그러나 2010년에 들어와서 몽골의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 정책 노력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기회복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광물자원 개발 붐과 더불어 건설부문의 회복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가 나타나는 등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와 ADB는 2010년 몽골의 실질 GDP 성장률을 각각 7%, IMF는 7.2%로 전망하고 있으나, 몽골 정부관계자들은 실제 8%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평가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몽골은 행정지령성 체제에서 민주주의 다당제로, 중앙집중식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급속히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몽골은 국가의 사회적 관계, 국민의 의식 및 정신 구조의 변화 등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역동적인 발전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소득불평등과 함께 빈곤층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인적 개발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또한 기술진보와 글로벌화 과정에서 대외환경이 변했으며, 이웃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은 국가경제의 급속한 발전, 사회적 문제의 해결,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국제적 약속의 이행을 위해 중장기 국가정책과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

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2007년 새천년개발목표에 기초한 몽골의 국가발전 전략이 수립되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기초하여 수립된 몽골의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4년 동안 경제발전에 의한 국가의 인적 개발 지원 뿐만 아니라 지구적 및 지역적 발전과 일치하여 국가의 사회, 경제, 과학 및 기술을 활발히 발전시키는 광범위한 정책이다. 국가발전전략의 목표는 국가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몽골의 주권을 보호·강화하고, 인적 능력 및 지성의 강화, 민간주도의 역동적인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교육, 보건, 과학기술 및 환경 개발을 포함한 인적 개발의 촉진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첨단기술과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서비스에 기반한 지식기반경제의 창출,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부패와 관료주의에서 자유로운 민주적인 거버넌스 시스템 육성 등을 통해 새천년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 소득 국가가 되는 것이다.¹⁰⁾

국가발전전략에 규정된 몽골의 장기발전 우선순위와 정책과 그 실행 전략 및 기대 효과는 2007-2015년(새천년개발목표 달성 및 활발한 국가 경제발전)과 2016-2021년(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의 두 단계로 구분된다. 또한 국가발전전략은 중기 및 단기 개발 프로그램과 계획, 국가의 행동계획(Action Plan) 뿐만 아니라 몽골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들과 공동으로 수행될 프로그램들과 통합되어 실행될 것이다. 몽골의 국가발전전략에 따르면, 최우선 순위는 몽골의 인적 및 사회적 발전, 두 번째는 경제성장과 개발정책, 세 번째는 실물 경제 부문의 발전정책, 그리고 네 번째는 인프라 개발 정책에 주어져 있다.

몽골 정부는 2007-2015년 기간 동안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약 140억 달러가 필요로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8%는 인프라 개발, 27%는 교육, 그리고 19%는 보건부문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6-2021년 기간 동안 실물부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10억 달러가 필요하다. 여기에다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80억 달러가 인프라 개발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동 기간 동안 총투자는 290억 달러에 달할 계획이다.

몽골 정부는 이상과 같이 새천년개발목표에 기반한 몽골의 국가발전전략이 실행되면, 집중적인 경제발전 시기(2007-2015년)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2016-2021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표 2> 참조).

<표 2> MDGs에 기반한 몽골의 국가발전전략 실행의 기대효과

2007-2015년	2016-202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최소 14%로 1인당 GDP 5,000 달러 달성, 두뇌집약적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지식기반경제 초석 구축	연평균 경제성장률 최소 12%, 1인당 GDP 12,000 달러 달성, 두뇌집약산업과 서비스 확대, 지식기반경제 발전, 중간 소득국가 진입

10) 2021년까지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대해서는 Millennium Development Goals-Base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Mongolia(Draft), Ulaanbataar, 2007을 참조.

2015년까지 모든 해당 연령 어린이의 초등 교육 등재 및 일반교육학교의 12년제 전환	2021년까지 모든 단계의 학교 등록률 100% 달성 및 국제기준에 완전 부합하는 학교와 대학교 수의 증가
급속한 경제성장 결과 다수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빈곤수준 반감	2010년까지 중간소득 국민을 총인구의 60%로 확대, 국민 인간개발지수(HDI) 0.8 도달
광물자원채굴 증대, GDP 중 제조업 비중 4배 증가, 첨단기술 도입 및 상품 경쟁력 제고, 석탄에서 석유 및 화학제품 추출 산업 설립, 2015년까지 국가의 석유 및 석유제품 소비의 50% 이상을 국내 산업이 공급	광물자원 채굴에서 최종제품 생산으로의 전환 가속화, 2021년까지 국내자원으로 전력, 열 및 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전력과 에너지를 세계시장에 공급, 석유제품 소비를 완전 국내생산으로 충족
관광부문 발전, 연간 방문관광객 수 100만 명 달성	관광사업의 발전, 몽골 방문여행자 수가 몽골 인구수와 동등하게 함
중소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 창출 및 실업의 현저한 감소, 소프트웨어 생산 및 수출 기회 창출, 소비 증대	몽골이 현대 기술을 채택하고 숙달한 국가로 변모
수도의 게르 구역 거주 2-3만 가구의 중앙 전력망 연계, 매년 평균 1만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도시인구 70%와 농촌인구 60%의 식수 수요 충족, 국내전력 수요 완전 충족, 모든 유목민 가구에 대한 태양력 및 풍력 에너지 공급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 및 효율성 향상
바이오기술 및 유전공학을 통한 가축사육 질 개선, 곡물수확 증대, 연평균 밀생산 4배, 감자 및 채소생산 1.5배 증가 등 농업 생산 향상	효율적인 농업 개발, 국내 식량수요가 친환경 경제품에 의해 충족, 식품 수출 증대
인프라 개선, 포장도로 길이 8,000 킬로미터 도달, 고비 및 동부지역 철도건설 60% 완성, 두 번째 철도 건설작업의 70% 완성, 주요 철도의 전철화 보장	역내 및 아시아에서 경쟁력 있는 현대적인 운송, 통신 및 에너지 인프라의 창설, 포장도로 길이 11,000 킬로미터 달성, 두 번째 철도 운영 개시, 서부, 고비 및 동부지역의 철도망 구축
울란바토르에 과도한 인구집중 저지, 일부 주요 지역거점의 인구수 5만 명 상회, 타반 툴고이, 우유툴고이 광산 같은 전략광물산지 부근에 인구 1-2만 명의 현대식 마을 건설	매년 15,000 이상 가구들의 주택환경 개선, 지역의 주요 거점들을 개발하여 각각 인구 10만 명에 이르게 함
의료시설 개선, 2000년 대비 5세미만 사망률 2/3, 임산부 사망률 3/4까지 감소	평균 기대수명 72세 달성, 숨(君)과 아이막(道) 병원 수요 완전 충족, 의료서비스 접근 및 질을 95%까지 달성

자료: Millennium Development Goals-Base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Mongolia(Draft), Ulaanbataar, 2007, pp. 58-61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 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제조업, 관광업 등으로의 산업다각화

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풍부한 광물자원의 개발과 가공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산업 분야의 발달을 모색하고 있다.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2021년까지 430억 달러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전략이 계획대로 충분히 실행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몽골과 인구 및 가축두수 면에서 비슷하지만, 영토는 1/6에 불과한 뉴질랜드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2008년 기준 몽골에 비해 최소 15배나 많은 3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운송이 편리한 뉴질랜드가 내륙국가인 몽골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향후 몽골의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결국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제대로 실행되어 눈부신 경제발전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능력, 낙후된 각종 인프라의 구축, 수준 높은 인적자원의 육성 등이 필수적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몽골의 GDP는 향후 5년 내에 2배로 늘어나고, 10년 내에 4배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¹⁾ 이는 ‘오유틀고이’와 ‘타반톨고이’ 등 몽골의 대규모 광산과 더불어 다른 광물자원개발 프로젝트들도 추진되고 있어,¹²⁾ 4~5년 후에는 몽골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20%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 큰 차질 없이 실행될 경우, 몽골의 경제는 그러한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몽골 정부가 설정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의 목표에 따라 몽골의 1인당 GDP가 2015년에는 5,000달러, 2021년에는 1만 2,000달러까지 달해 중간소득 규모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III.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현황과 평가

1. 경제협력 현황

1) 무역협력

한국과 몽골의 교역은 1982년 한국의 대몽골 수출(30만 달러), 1985년~1987년간 한국의 대몽골 수입(각각 54만 달러, 17만 달러, 14만 달러)으로 시작되었으나,¹³⁾ 양자간 수출과 수입은 1988년 한국이 몽골로부터 천연섬유원료를 수입하고 섬유제품을 수출하면서부

11) Mongolian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spiring Mongolia*, Spring 2010, p. 8.

12) 오랫동안 협상을 끌어오던 오유틀고이 광산개발 문제가 2009년 10월 몽골 국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몽골 정부와 아이반호-리오틴토(Ivanhoe-Rio Tinto)사가 장기투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가 현저히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틀고이 광산개발을 위해 계획된 약 50억 달러의 투자는 몽골 GDP 규모와 유사할 정도로 큰 금액이기 때문에 몽골의 국가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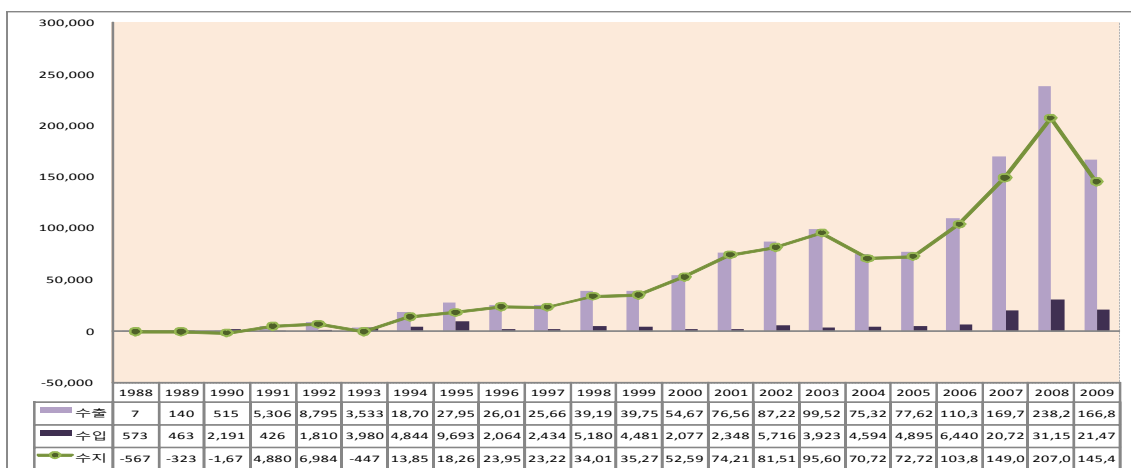
13)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상 ‘국가의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가 1988년부터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역품목은 알 수 없다.

터 시작되었다. 1990년 수교 이후부터 양국의 교역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1994년에는 2,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1990년대 한국은 주로 승용차와 섬유제품을 수출하였고, 동광과 아연, 은 등과 같은 광물자원을 수입하였는데, 이러한 교역구조는 지금까지 큰 차이 없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한국의 대몽골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약 1,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양국간 교역량은 2000년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3년에는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후 2004년~2005년 기간 동안 세계 원자재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몽골내 연료, 식료품, 섬유제품, 생필품 등의 가격이 급등하여 소득 및 수요 감소 효과를 가져와 해당 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다소 감소하였다. 2006년 이후부터는 양국의 교역량이 다시 회복되어 2008년 한국의 대몽골 수출과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40%, 50% 증가하여 수출 2억 3,823만 달러, 수입 3,115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에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과 수입이 전년대비 각각 30%, 31% 감소하여 수출 1억 6,689만 달러, 수입 2,148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몽골 무역흑자도 1994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2억 708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한 1억 4,541만 달러를 기록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연도별 한-몽골 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9년 기준 몽골은 한국의 87대 수출국이자 101대 수입국이며, 총수출에서 몽골이 차지하는 비중은 0.046%이고, 총수입에서 몽골의 비중은 0.007%로 매우 낮은 편이다. 같은 해 기준 한국은 몽골의 8대 수출국이자 3대 수입국으로 총수출에서 한국의 비중은 0.8%, 총수입에서의 비중은 7.3%이다.¹⁴⁾ 한국의 대몽골 수출과 수입 비중 및 몽골의 대한국 수

14) 몽골통계청 (2009),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출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몽골의 대한민국 수입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과 몽골의 교역은 외교관계 수립 이전에는 원료(섬유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섬유 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교역구조였다. 1990년 이후부터는 의료용기기, 컴퓨터,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의 기계류가 수출되고, 몽골의 철, 비금속광물, 동광 등의 광물자원과 섬유원료 등이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품목이 점차 다양화되었고, 보다 상호보완적인 교역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2009년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화물자동차(17.9%), 자동차부품(7.4%), 무선전화기(6.2%), 승용차(4.6%) 등 자본집약적 제조업 제품이며, 주요 수입품은 폴리브덴과 같은 기타금속광물(87.3%), 형식 등의 기타비금속광물(5.1%), 천연섬유원료(2.5%), 모류, 편직제의류(스웨터) 등 원자재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 제품이다.

2009년 말까지 양국간 교역에 참가한 한국의 대몽골 수출업체는 총 527개사, 수입업체는 56개사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대한항공, 현대중공업, 교보, 제일모직 등과 같은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2) 투자협력

한국의 대몽골 투자는 한국이 경험한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최초 투자가 시작된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투자액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전년대비 약 57% 감소했다. 2009년까지 총 투자금액은 1억 7,566만 달러이고, 총 투자건수는 991건이다(<표 3> 참조). 2009년 한국의 대몽골 투자는 금액 기준으로 총 해외투자의 0.3%에 불과하며, 투자건수 기준으로는 1.5%를 차지하는 등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표 3> 연도별 한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

연도	신고기준		투자기준	
	건수(건)	금액(천 달러)	건수(건)	금액(천 달러)
1994	3	2,720	2	241
1995	5	5,134	4	4,806
1996	2	708	6	570
1997	5	356	4	1,400
1998	5	458	1	130
1999	5	4,272	4	1,855
2000	13	5,457	15	2,584
2001	9	4,552	14	2,634
2002	13	5,715	13	2,884
2003	11	4,567	18	927

2004	29	7,931	47	3,345
2005	52	14,226	104	6,705
2006	53	44,129	116	19,407
2007	104	50,271	179	44,367
2008	194	165,171	262	58,508
2009	114	123,021	202	25,298
누계	617	438,687	991	175,66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대몽골 투자는 최초 투자가 시작된 1994년부터 2009년 말까지 투자 업종별로 보면, 누적투자금액 기준으로 광업부문이 3,272만 달러(174건)로 전체 투자중 18.6%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고, 다음은 도소매업 2,587만 달러(165건)로 14.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442만 달러(42건)로 13.9%를 차지하고 있다.¹⁵⁾

광업에 대한 투자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2009년 말 기준 한국은 금, 구리, 유연탄, 희토류, 형석, 주식, 물리브텐 개발사업 등 총 34개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중 1개 사업만이 생산(유연탄) 중이며, 6개 사업이 개발 단계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조사 및 탐사 단계에 머물고 있는 등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몽골 자원 확보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도매 및 소매업에 대한 투자 진출은 1994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초기에는 자동차 부품 판매와 전자상거래와 무점포 소매업 중심으로 진출했다. 2005년부터 건축자재 및 방직용 섬유 및 섬유사, 시계 및 귀금속제품, 금속광물 도매업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중고 자동차 판매와 담배, 가정용 요업제품, 주방용품, 여행용품, 기계 및 장비, 금속제품, 섬유·의복·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곡물 도매업, 산업용 농산물, 화장품,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판매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도매 및 소매업의 특징은 대기업은 거의 진출하지 않았고, 주로 중소기업과 개인별 투자의 단독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분야에서는 1999년 최초로 대기업이 합작투자 방식으로 175만 달러를 투자해 2009년 말까지 총 469만 달러 투자했다. 중소기업은 주로 영화관 운영 및 서적 출판업에 진출해 있으며, 2006년 처음으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위해 10만 달러 상당을 합작투자 방식으로 투자했다. 그러나 2007년 대기업이 동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2009년까지 대기업이 위주로 진출했고 금액은 1,015만 달러에 이른다.

건설업에 대한 투자는 현재 총 1,185만 달러(91건) 투자되었으며 전체 투자중 6.75%를 차지하여 6위를 기록하고 있다.¹⁶⁾ 몽골의 건설시장에 대한 참여는 1995년 현대건설의 발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기준.

16)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에는 설계, 감리 등 용역 부문에 대한 투자가 누락되어있고, 현지 단독 및 지분투자

전소 개보수 공사 감리건(154만 달러)을 시작으로 점차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을 중심으로 상업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아파트,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토목시설물, 공업·산업용 건물 시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산업단지,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 및 도로개발 사업에 대한 감리, 주거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과 같은 용역을 수행해 왔다. 한국은 몽골의 건설업에 대하여 2009년까지 총 109건의 수주를 통해 2억 3,017만 달러의 건설 시공 및 용역을 수행했다.

제조업은 1,148만 달러 투자되어 7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투자건수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아 117건을 기록하고 있다. 초기에는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시계, 귀금속, 식료품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를 했으며 이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담배, 인쇄, 펄프, 금속가공제품(저장용기), 비금속광물제품(시멘트, 레미콘 등), 전자부품, 가정용품, 농기계 제조 등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의 대몽골 업종별 투자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09년까지 801만 달러(33건) 투자되었다. 동 업종은 한국의 초기 투자시 도매 및 소매업과 함께 주로 투자되었던 부문으로 중소기업 및 개인 위주의 소규모 투자로 특징지을 수 있다. 2009년 말 현재까지 상당수의 소규모 점포 및 업체가 외국식 음식점업 및 주점업, 호텔업 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체들이 몽골의 현지 통계상 요식업(catering service)으로 분류되어 몽골내 한국 투자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¹⁷⁾

한편, 투자목적별 한국의 대몽골 투자 특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수출촉진과 저임용을 목적으로 투자하였으나 2005년 이후부터 광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07년 이후부터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방송통신 및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기존의 투자 세부 업종에서 보다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현지시장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급증하였다. 전체 투자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에는 현지시장 진출 및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82.3%를 차지했고, 2009년에는 96.8%를 차지해 몽골 시장 개척과 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1억 186만 달러(572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대기업 4,689만 달러(77건), 개인 2,453만 달러(306건), 개인기업 238만 달러(36건) 순이다. 개인별 투자가 금액은 적지만 투자건수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약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말까지 대몽골 투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은 주로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진출하였으나, 광업 부문으로 자원개발을 위해 진출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투자 형태별로는 단독투자의 경우가 557건 (9,796만 달러)로 가장 많고, 합작투자 322건 (5,487만 달러), 공동투자 111건 (2,263만 달러)이다. 합작투자

등을 통한 법인설립, 지사 설립 등을 기준과 신고 및 송금횟수 등에 관한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감리와 같은 용역을 포함한 건설수주 통계를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17) 몽골과 한국의 통계상의 차이는 양국간 업종 분류와 투자 기준의 차이로 발생되며, 몽골내 한국 투자의 특징과 비교할 필요성이 있음.

는 1990년대 몽골 진출 초기에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광업 및 통신과 같은 정보서비스업 등과 같이 정부 규제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2. 한·몽 경제협력 평가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정치협력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양국간 정상 및 고위급의 상호방문을 통해 경제협력 계획을 논의하거나 각종 협력 협정을 체결한 적은 많았지만, 실제로 집행된 사업은 적었다. 한국과 몽골의 교역량은 수교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에 2억 3,823만 달러, 2009년에는 1억 6,990만 달러였으며, 2009년까지 한국의 대몽골 직접투자도 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반면, 중국과 몽골의 교역량은 2008년 28억 1,390만 달러, 2009년 19억 2,290만 달러였으며, 2009년까지 중국의 대몽골 직접투자는 19억 8,148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아직 한국은 주로 자동차와 기계류를 수출하고 광물자원을 수입하는 등 교역구조가 특정 품목에 한정된 채 다변화를 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기업의 몽골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의 대몽골 투자진출 기업 가운데 무역과 요식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65.8%, 기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이 16.1%를 차지하는 등 주로 소규모의 요식업과 가라오케, 건축, 무역, 자동차 판매 및 정비 등과 같은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몽골에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주로 조사단계에 있고 실제 생산단계까지 발전된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2010년 4월 현재 몽골의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35개로, 주로 금, 동, 형석, 유연탄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진출한 소규모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조사 및 탐사 단계에 있고 생산단계에 있는 기업은 3개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약 1억 달러 투자가 예상되는 '에르테넷' 동광산 제련소 건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아직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원개발 사업은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크게 작용했다. 몽골의 투자관련 법규가 자주 변경되고, 기존 결정이 취소되는 등 법률 준수 정도가 미흡하고, 관료의 부정부패 등이 한국의 대몽골 진출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몽골의 협소한 내수시장, 열악한 물류수송망, 열악한 기후조건과 근무환경, 금융부문 및 자원개발 관련 인프라 시설의 취약성 등이 한국기업의 대몽골 교역 및 투자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다 한국은 몽골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했고, 그 결과 사업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점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예컨대 몽골에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정보수집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현지에 그러한 연구센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내 대학교에서 몽골을 연구하는 학과는 단국대학교에 이어 2009년에 개설된 한국외국어대학교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보부족으로 인해 광물자원 협력의 경우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진출 여건이 좋았으나 현재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호기를 놓쳐 버렸다. 이 외에도 한국과 몽골간 비싼 항공료가 경제협력의 확대를 저해한 요인이기도 하다.¹⁸⁾ 보통 국제선 항공료가 1시간당 100달러를 조금 상회하지만, 한국과 몽골간 비행시간은 3시간 남짓함에도 불구하고 왕복항공료가 700달러에 육박함으로써 경제협력 확대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몽골 정부관계자들이 복수취향을 건의하였으나, 몽골의 국영항공회사(MIAT)가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대함으로써 아직까지 복수취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막대한 차관제공에 기초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몽골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으로 자리매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의 몽골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제 전환의 어려움을 극복한 러시아도 과거 몽골에서 누렸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몽골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몽골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제3의 이웃' 국가들 가운데서는 몽골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부상하였다. 그동안 몽골에 대한 최대 원조국이었던 일본은 최근에 들어와서 몽골의 광물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향후 세계 주요국들의 대몽골 진출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몽골과 인종·문화·언어적으로 유사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몽골에서 쉽게 누려왔던 프리미엄에서 탈피하여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몽골의 지도층 일각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막연히 관성에 따라 추진해 오던 몽골과의 협력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은 몽골과 수교 20주년을 맞이한 올해부터 기존의 요식업 및 서비스업 위주의 투자협력 패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협력단계로 진입할 시기에 직면해 있다. 이때 몽골 정부가 산업다각화 및 현대화를 기조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발전전략 2021'에 부응하여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 이러한 분야를 발굴하고 협력을 추진해 나갈 때 한국과 몽골의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IV.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

18) 몽골 외무부 Basanjav Ganbold 아시아국장과의 인터뷰(2010, 5. 6, 울란바토르).

1. 중소기업 진출 확대

최근 몽골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실업률을 감소하고 빈곤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2015년까지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수출지향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라이선스 발급 및 허가 서비스를 완전히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창설하고,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생산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몽골은 생산적인 투자와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산업다각화 및 수출증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이 앞으로 몽골과의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몽골의 수요에 부응하여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중소기업의 진출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기존의 요식업 및 서비스업 위주의 투자협력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협력단계로 진입해야 할 것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들로의 진출이 유망하다.

첫째, 몽골이 광업 및 중공업과 연계된 중소기업 및 서비스를 발전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현지 광물자원과 원자재를 활용한 제조업 진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재 붐이 일어나고 있는 몽골의 광물자원 부문에서 널리 사용되는 휴대 장비와 설비 및 부품의 생산, 이탄 및 석탄에서 석유제품 추출, 구리 채련과 통신 케이블의 생산 등의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진출 전망이 밝다고 판단된다.

둘째, 몽골 현지에서 목축업과 경작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비롯하여 몽골의 풍부한 원료를 활용한 식품 및 음료 산업, 그리고 육류가공 분야의 진출이 유망할 것이다.

셋째, 섬유, 봉제, 뜨개질 의류, 모직 및 캐시미어 제품가공 등 경공업 분야의 진출과 더불어 몽골에서 이제 막 발전단계에 있는 냉장 및 냉동창고를 비롯한 물류와 유통 서비스 분야의 진출 역시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몽골 현지에서 각종 건설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건설자재 산업, 평판유리와 기타 건설관련 제품의 제조, 조명산업 등의 진출 또한 전망이 밝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몽골 정부가 정보통신기술을 21세기 몽골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된 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몽골은 2015년까지 소프트웨어, 기술, 법적 틀, 구조, 구직, 재정 및 경제적 조건 그리고 인적자원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한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 육상 정보통신선을 디지털

기술로 전환하고 3G 스펙트럼으로 교체하고, 육상과 위성 2개를 결합한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속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기술 장비의 도입, 생산 및 수출을 위한 필요조건을 창출하며, 국가로부터 모든 종류의 원조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성과를 모든 사회경제 생활 분야에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온라인 의료진료 제공, 온라인 은행서비스 도입, 농촌지역 무선 전화의 활발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몽골의 소프트웨어, 장비 및 정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몽골 정보통신기술을 혁신하고 기술, 법률, 조직, 금융, 경제 및 인적자원 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소규모 자본으로도 쉽게 진출할 수 있으며, 아직 진출 여력이 많은 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매우 유망하다. 특히 몽골정부가 최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단지 조성, 대외 직항노선 증편 및 새로운 항로 개설 등을 추진하면서 2015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를 연간 100만 명까지 증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 분야의 진출 전망이 밝다고 판단된다. 한국은 몽골과 함께 보다 고급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스키나 사냥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선보일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관광공사 차원에서도 몽골의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대규모 관광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한국과 몽골간 항공료의 인하가 필수인 바, 양국 정부는 복수취항을 포함하여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¹⁹⁾

일곱째,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세제 등 우대혜택 제공 외에도 입주 기업들에게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는 몽골의 자유무역지대로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²⁰⁾ 몽골 정부가 북쪽 국경지대에 설치한 알탄불락 자유무역지대(Altanbulag Free Trade Zone)는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하여 무역에 유리하다. 알탄불락 자유무역지대의 행정관할 사업부는 이미 몽골 및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등 80여 기업들에 400여 헥타르의 토지를 임대해주고 6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남쪽 국경지대의 자민우드 자유무역지대(Zamyn-uud Free Trade Zone)는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제조 및 서비스업, 관광업에 특화되어 있다.²¹⁾ 그리고 서부지역인 차강누르 자유무역지대(Tsagaannuur

19) 만약 한국-몽골간 항공료가 한국-중국 또는 한국-일본간 항공료와 큰 차이가 없을 경우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몽골 단체 수학여행을 포함한 단체관광이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몽골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20) 몽골 정부는 교역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수출 지향형 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2002년 6월 '자유지대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데 이어 알탄불락(2002년 제정), 차강누르(2003년 제정) 및 자민우드(2003년 제정) 자유무역지대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하여 자유무역지대 설치하였다. 자유무역지대의 주요 인센티브는 외국에서 자유무역지대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부가세 및 소비세를 면제하고 자유무역지대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관세, 부가세 및 소비세를 면제(단, 법에 의해 수출 관세가 특별히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토지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21) 자민우드 자유무역지대에서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업종별 구체적인 분야는 제조업(가전·전자제품 조립 및 직물, 가구, 수출용 기념품 제조 공장), 서비스업(창고, 홍보 전시관, 상품 거래소, 제품의 포장, 은행 및 금융서비스업, 정보통신 센터), 관광업(호텔 등 관광객 숙소, 레스토랑, 카페, 패스트푸드점, 카지노, 골프장, 경마장, 낙타 폴로 경기장)

Free Trade Zone)는 러시아와의 서쪽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무역 및 관광산업 발달을 통한 서부지역 실업감소,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²²⁾ 한국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인접한 자민우드 자유무역지대와 러시아와 인접한 알탄불락 자유무역지대에 진출을 확대하여 중국과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으로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인접한 차강누르 자유무역지대로의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 몽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다수가 현지의 저렴한 원료나 노동력을 활용한 현지 시장진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 제3국 수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한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몽골에 진출하는 제조업의 경우 이제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몽골은 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국으로서, 7,000개가 넘는 품목이 쿼터 없이 제로 관세율로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이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한국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품목을 발굴하여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몽골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²³⁾ 한국은 주로 자동차, 기계류를 수출하고 광물자원을 수입하는 등 특정 물품에만 치우쳐 있는 무역 구조를 띠고 있다. 농산물가공식품, 건설중장비,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대기업에 비해 정보력과 자본력에서 취약한 한국의 중소기업이 몽골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몽골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몽골 진출을 위해서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무역관을 몽골 현지에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지 KOTRA 무역관이 개설될 경우,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몽골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투자사절단 파견 및 박람회 개최 등의 추진이 용이하여 한국의 대몽골 진출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광물자원 및 에너지협력 확대

1) 광물자원

몽골의 광업은 2009년 기준으로 GDP의 22.1%, 제조업의 65.4%, 수출의 84.6%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하여 탐사되지 않은 부분과 개발을 못하고 있는 광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몽골과의 자원개발 분야 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수송상의 애로와 자원민족주의 발호 등으로

등이다(박종국, 「몽골의 자유지역 현황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조사보고서』, 2010. 5. 25 참조).
 22) 박종국, 「몽골의 자유지역 현황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조사보고서』, 2010. 5. 25.
 23) 2009년 기준으로 수출은 약 0.05%, 수입은 약 0.01%에 불과하다.

주목을 받지 못하던 몽골의 광물자원은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탐사 및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8년에 몽골의 광물 라이선스 발급규모가 전년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한데서 잘 알 수 있다.²⁴⁾ 광물자원의 개발·탐사와 관련된 라이선스 발급은 2009년 1월말 현재 총 5,202건(개발 라이선스 1,091건, 탐사 라이선스 4,111건)이며 라이선스 발급 대상지역의 연면적은 전 국토의 무려 31%에 달하고 있다.²⁵⁾

한국은 현재 최대의 관심을 갖고 진출하고자 하는 타반톨고이 석탄광산 외에도 다른 전략광산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몽골의 전략광산과 관련된 주요 개발 계획 가운데 우라늄 광산개발 프로젝트가 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마다이, 도르노드, 거반불라그 등 3개의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려는 사업이다. 과거 이 분야의 협력은 러시아가 우세하였으나, 체제전환 이후 중국이 강세를 보이면서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몽골 정부는 몽골의 우라늄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등 특정국가의 독점적 개발보다는 가급적 한국과 인도 등 우라늄 탐사 및 개발 경험을 보유한 국가들과 협력을 다변화 하려고 희망하고 있다. 그동안 몽골 우라늄광 개발에 대한 정책의 불확실성, 인프라 부족 등으로 한국기업의 몽골 우라늄광 투자는 부진한 실정이다. 현행 몽골 원자력법 역시 우라늄광을 전략광산으로 지정하여 국가지분 보유를 의무화(34~51%, 무상)하고 보유 지분 양도시 정부의 승인 의무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기업은 기타 국가와의 우라늄 투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은 우라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몽골과 우라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간 우라늄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원자력발전 원료로 활용되는 우라늄 개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도 몽골에는 현재 6,000개 이상의 광물매장지가 있고, 아직 탐사되지 않은 지역이 7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유망한 광물산지 개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유틀고이 광산의 협상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몽골 정부는 앞으로 점차 자국의 지분율을 높여 광물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원개발과 철도 등의 인프라 투자를 연계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예컨대 몽골 정부는 2011-12년 기간 동안 630킬로미터의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 있는데, 이는 남부지역 오유틀고이 광산에서 북동부 지역의 초이발산을 거쳐 러시아의 치타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몽골 정부는 이러한 철도부설에 참여하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 광산개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몽골은 최근에는 주요 자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수금 명목의 차관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4) 자료: 박세근, 「몽골의 자원 및 광업부문 현황과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수은해외경제』, 2009. 11, p. 4.

25) 개발 라이선스의 대상광물별 비중은 금 43%, 건설자재용 광물 19%, 석탄 15%, 형석 12% 등이다.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몽골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몽골 자원협력위원회’의 내실을 기하면서 대몽골 자원 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몽골 광산지의 대부분은 도로, 철도, 식수, 전기 등 기초 인프라 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광물자원 개발과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²⁶⁾ 둘째, 전략광산의 경우 라이선스 승인, 정부의 지분을 결정 및 투자보장계약 심의 등은 몽골의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현존하는 ‘한·몽 의원친선협회’²⁷⁾를 더욱 활성화하여 자원개발 협력 사업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기업들은 이미 에너지·광물자원의 매장량과 경제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분 참여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⁸⁾ 몽골은 대부분의 경우 에너지·자원의 탐사권을 부여하는 기업에 대해 개발권도 함께 주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서방 기업들에 비해 탐사기술과 자본이 부족하여 탐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하기 어려운 한국기업의 경우, 이러한 방법이 유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몽골의 광물자원개발시 ODA-인프라 사업 연계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몽골이 직접적인 광산개발 외에도 해당 자원을 활용한 연관산업과 인프라 건설을 통해 광산개발에 따른 이익을 확보하고 경제발전에도 활용한다는, 즉 인프라 개발과 연계한 자원개발 모델에 기반하여 외자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형 ODA 전략을 수립하여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현재 한국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관리 및 운영권 확보하려는 타반톨고이 석탄광산의 경우, 한국기업이 몽골내 철도부설을 지원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내륙국이라는 몽골의 특성상 개발한 자원을 한국으로 수송하거나 항구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중국과 러시아에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²⁹⁾

2) 석유자원

풍부한 광물자원 외에도 현재 몽골에는 최소 20-30군데의 석유매장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13개 주요 분지의 원유 추정매장량이 총 107억 배럴로 추정되며, 그 중 탐사그(Tamsag) 분지에 44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26) 몽골의 15개 전략광산을 관리하는 국영기업의 조리트 사장은 전략광산에 투자하려면 인프라 건설 능력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철도공사(RZD)는 몽골 정부와 철도부설 관련 투자협정을 맺고, 철도 개선 대가로 광업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7) 몽골 전체 국회의원 76명 가운데 동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의원은 34명에 이르고 있다.

28) 심의섭(2009), 「한국과 몽골간의 자원개발 협력」, 한국 몽골학회 발표문, p.32

29) 예컨대 오유톨고이 광산에 투자한 캐나다의 아이반호사와 영국의 리오 틴토사는 생산되는 광물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중국의 5개 구리제련 공장과 거래 상담을 했으며 2004년 6월 (주)Jiangxi Copper과 MOU를 체결하였다.

추정된다. 최근 외국의 탐사기관들은 몽골에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몽골에서의 석유생산이 매우 유망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몽골은 1998년부터 원유수출을 개시한 이후 인프라의 미비로 채굴과 판매가 부진한 편이었으나, 최근에 들어와서 생산 및 수출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추세로 볼 때 향후 10년 후 몽골에서 상당량의 석유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에 20%였던 몽골의 원유 자급도가 2010년에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몽골의 석유 생산 및 수출동향

항목/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생산량(백 만 톤)	200.7	376.5	850.2	1,174.2	1,870.0
증가율(%)		87	225	38	59
수출량(백 만톤)	188.1	337.9	812.3	1,058.9	1,919.4
증가율(%)		80	240	30	81
수출액(백만 달러)			53.4	101.9	114.2
증가율(%)				59	12

자료: D. Shurkhuu, "Perception and Strategies on Energy Security: The Case of Mongolia and ROK, 세미나 발표자료, 서울, 2010. 4. 19

1991년 석유법이 관련 법률로 제정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몽골에서 석유를 개발할 경우 생산물분배협정(Product Sharing Agreement: PSA)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는 분배받은 석유를 수출할 수 있다. 또한 허가 기한은 탐사의 경우 5년이며, 2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고, 석유채굴의 경우 몽골 정부가 채굴에 동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20년으로 하며, 정유공장 등을 건설할 경우 정부의 동의를 거쳐 기존 20년에 추가적으로 5년 이내로 2회 연장하여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 몽골의 석유부문 발전계획은 2010년까지 '석유산업 분야 시행 가이드라인'과 '석유산업발전전략'에 제시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탐사 및 연구능력 강화, 석유 생산과 수출증대, 정유설비와 원유 비축시설 건설 등이며, 몽골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에서 석유개발은 이제 막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중국이 석유 탐사 및 개발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몽골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현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10년 후 중국의 페트로차이나(Petrochina)가 몽골의 석유개발 사업을 거의 장악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국은 그동안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사업에만 관심을 갖고 참여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몽골의 석유채굴 분야도 유망한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몽 광물 및 에너지자원 협력의 확대는 세계 에너지자원의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인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에 의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도 있다. 특히 지질 탐사, 개발 및 석유가공 분야의 협력이 유망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한국과 몽골의 에너지 협력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몽골의 두 거대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이 없이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몽-러 혹은 한-몽-중 등과 같은 3자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플랜트 산업 진출

1) 정유공장 건설 참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은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이며, 석유도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몽골의 석유 확인량은 44억 5,000만 배럴에 달하고 있고, 최근 몽골에서 석유탐사가 확대 중에 있다. 석유의 경우 1998년까지 22개의 유전이 고비사막 및 동몽골의 서부지역에서 발견 되었으며, 동부지역 탐사구(Tamsag) 유전과 준바양차 강 일스니 유전에서 소량 생산되고 있는 원유는 중국으로 전량 수출 중이다. 미국, 캐나다, EU,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의 기업들이 유전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탐색 결과로는 몽골의 유전개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특이사항은 몽골은 원유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제시설이 없어 생산 원유를 모두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자국에서 사용되는 석유의 95%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몽골은 총수입에서 석유를 비롯한 연료제품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장차 국내에서 석유를 가공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몽골은 정유소 건설을 주요 국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세계적인 정유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분야에서 몽골과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몽골 정부측은 현지 LG상사 지사에 정유소 건설을 제안한 바 있다. LG상사측에 따르면 LG상사가 몽골측에 사업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몽골정부측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며, 아직 사업내용이 구체화된 바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몽골에서의 정유공장 건설은 유망한 협력 분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참여

한편, 몽골의 현재 전력설비는 850MW 규모로 수요전력의 일부는 러시아로부터 수입

하고 있다.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은 부존 우라늄을 활용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도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원전도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재원 마련, 인프라 조성 등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원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몽골 정부는 최근까지 원자력 선진국인 프랑스와 역사적, 문화적, 정서적으로 가까운 러시아를 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꼽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 건설 분야에서 최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몽골 원자력청과 중소형 원자로(SMART)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국회 기후변화·에너지 대책연구회, 서울대 핵변환센터 등에서 원자력 인력양성 및 정보교류를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원전 도입 시기 및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대형 상용원전 건설 분야에서의 몽골과의 협력은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도 몽골의 CBM(석탄층 메탄가스)를 이용한 DME 공급사업도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몽골 울란바토르 대기환경 질 개선에 공사의 기술을 활용한 공동 연구소 설립 및 석탄층 메탄가스를 이용 DME 시범공급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 11월 몽골측과 CBM 개발 공동조사합의서(Joint Study Agreement)를 체결하여 3년간 30억 달러를 투입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CBM 탐사, 시추 및 생산, 메탄가스 공급방안 조사, CBM개발 및 공급 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의 공동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CBM 개발 및 청정연료 공급으로 몽골 대기질 환경개선을 통한 양국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4. 인프라 개발 참여

1) 철도 및 도로 건설 참여

몽골은 광활한 국토에 비해 각종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다. 2007년 세계은행이 150 여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물류환경 평가에서 몽골의 철도 및 도로 수송과 관련된 물류 여건은 136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 세계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몽골의 경우 가장 가까운 항구까지 상품을 수송하는 비용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내륙국에 비해 2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몽골의 교역증대로 인해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전략광산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철도부문의 투자와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몽골의 철도의 총 연장은 1,816Km로 간선철도 1,100km, 지선철도 477km, 기타 철도 239km 등으로 이루어져 러시아와 같은 광궤(1,520mm)를 사용되고 있다.³⁰⁾ 현재

몽골 정부는 도로와 함께 철도망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바, 주로 타반톨고이, 오유틀고이 등 주요 광상이 밀집되어 있는 남고비 지역의 석탄, 동, 금 등의 광산 개발과 연계하여 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몽골정부는 2021년까지 고비지역과 동부지역 간 연결, 전략광산들과 기존 간선철도 간 연결 그리고 제2 간선철도 건설 등 주요 철도라인을 완공할 예정이다. 특히 몽골 정부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타반톨고이-사인샨드-후트(Hoot)~비칙트(Bichigt)~초이발산간 제2의 간선철도를 완공하여 러시아의 치타와 연결할 계획이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여객 수용량이 현재의 5~10배로 증대되고 운송 수용량은 연간 5,0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주요 광산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구축되면 수출증가, 외국인 투자확대, 산업화촉진 그리고 도시와 지방 간 교통 환경 개선 등이 기대된다. 또한 2008년에서 2018년 중 자민우드 지역에 각종 수송기관을 통합한 터미널을 건설하여 몽골의 철도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³¹⁾

한편 몽골의 도로 총연장은 49,250km에 이르지만, 도로포장률은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경으로 이어진 포장도로는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러시아를 잇는 도로가 유일하나, 현재 울란바토르와 중국 국경간 고속도로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몽골 정부는 도로망 확충을 위해 도로확충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주요 지역을 연결하고, 주변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4개 노선의 남북 종단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도로건설비용이 약 6억 2,700만 달러로 예측된다. 밀레니엄 도로(Millennium Road)는 울란바토르를 기점으로 동부와 서부를 횡단하는 것으로 2010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8-10년 내 완공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울란바토르에서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총연장 464km의 도로 네트워크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212km의 포장도로를 새로 건설하고 기존의 350km에 이르는 포장도로를 개보수할 계획이다. 울란바토르는 포장도로가 지난 20년 동안 크게 확장되지 않는 반면 화물차량은 2배로 증가해 도로 확장과 보수가 필요하다. 몽골 정부는 건설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법을 비준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몽골 정부는 항공운송 부문의 개혁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 발전 및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울란바토르시 국제공항 건설, 하르호린시 신공항 건설, 지방 공항에 포장 활주로, 조명 및 착륙 시스템 설치, 항공운송 분야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국제선 여객기 취항지역 및 편수 증진 등을 추진할 것이다.

세계은행은 현재 몽골의 경제규모와 건설 여력 등을 고려할 때 몽골 정부가 계획하는 2015년까지 도로 확대 건설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이 약 6억 2,700만 달러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본과 중국 등은 대규모의 무상원조를 통해 동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광산 개발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으로

30) 몽골의 철도는 전체 화물운송의 90%, 여객운송의 50%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운송화물은 목재(74%), 원유(5%), 건축(5%) 등이 차지하고 있다.

31) 박종국, 「몽골의 전략광산 개발현황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조사보고서』, 2010. 4. 24, pp.5-6.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몽골에서는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개발 수요가 막대하다. 특히 몽골 정부는 남부지역의 대규모 전략광산 개발권과 철도부설을 연계하여 철도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광물개발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남부 고비지역의 광산개발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이 철도부설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몽골 정부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몽골의 철도부설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타반톨고이와 같은 전략광산의 개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공동으로 철도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몽골의 자원을 개발하더라도 결국 수송하려면 양국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 공동으로 협력을 할 경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러시아, 중국의 기업들과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향후 개발 사업에 대한 협조와 자원수송의 비용 축소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한국은 그동안 중동과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여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몽골의 도로 건설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몽골 경제가 발전할수록 도로 인프라 확충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선점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첨단기술생산단지 및 해외산업단지 건설

몽골 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외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기술단지 (Industrial and Technical Park)를 설립하여 발전시킨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몇 개의 지역 중심지와 도시에 산업기술단지들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몽골 정부는 다르면 등에 산업기술단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10대 자원 보유국인 몽골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의 IT, ET 등 첨단산업의 결합은 상호 호혜적인 발전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모델을 몽골에 전수할 경우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해외산업단지를 건설하여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몽골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몽골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건비도 저렴하고, 주거비, 운영비 등 사업비용 면에서 아시아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국가이다. 특히 몽골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나 중국 등에서 철수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몽골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유치할 경우 한-몽 경제협력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3) 건설협력 확대

몽골의 건설산업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인구가 집중됨으로써 2007년까지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2008년에는 12.8% 감소한데 이어, 2009년에는 48.8%나 감소하였다. 2009년 건설업 및 하자보수 총 규모는 2,794억 투그릭(전년대비 48.8% 감소)으로 이중 10.6%(288억 투그릭)를 외국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 건설업체들이 몽골에 다수 진출해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은행융자를 받지 못해 건설이 중단된 경우가 다수 있다. 그러나 현지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동 분야에서 한국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건설 분야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몽골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광업, 제조업, 관광산업 등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 부문에 대한 국가전략인 10만 가구 건설, 밀레니엄 도로 프로젝트, 도시개발 및 수송 편의를 위한 철도 부설 등과 같은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부문에 대한 건설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9년 10월 오유틀고이 광산개발 투자계약의 체결 이후 광업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어 향후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전망은 밝은 것으로 전망된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자재중 시멘트의 경우 몽골의 자체 생산능력은 25만~30만 톤이나 수요는 약 1,000만 톤으로 부족분은 주로 내몽골에서 수입하고 있다.

<표 5> 몽골 주요 건설자재 생산현황

종류	단위	2006	2007	2008	2009
시멘트	천톤	140.8	179.8	269.3	175.3
석회	천톤	60.4	43.3	54.8	32
철콘크리트제품	천입방미터	19.2	29.6	65.4	8.4
metal sleeper	천개	45	69	34.5	47.8
솔리드콘크리트	천입방미터	7.9	3.5	2.8	0.6
콘크리트모타르	천입방미터	32.2	47.0	91.9	28.8
나무 문, 창	천제곱미터	3.6	2.8	6.2	1.2

자료: 외교통상부.

현재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 몽골의 건설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몽골에서 건설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몽골의 자원 개발과 도시 재개발 등 대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면한 문제가 인력부족이다. 특히 숙련노동력과 전문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건축분야 숙련 인력난 해소를 위해 몽골정부가 향후 수년내 북한인력 5천명을 도입키로 하고 구체 사항에 관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몽골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침체되었던 건설부문이 현재 회복

세를 보이고 있어,³²⁾ 건설시장 및 주택건설 진출이 유망한 만큼 이 분야의 진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수도인 울란바토르와 거대 지방 중심지에 이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주택 및 상가빌딩 건설 분야의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³³⁾ 특히 몽골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수많은 외국인들이 몽골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최고급 주택건설도 유망한 분야이다.

4) 도시개발계획 참여

몽골 정부는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에 의거하여 향후 적절한 주민 정착 양식을 고려한 도시 건설을 가속화하고, 건축자재 생산을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몽골 정부는 2015년까지 적절한 주민정착 배치 구도를 개발하고, 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의 규범과 기준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첫째, 주요 지역 중심지들을 인구 5만명 이상, 그 후에는 인구 10만명 가량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수도의 인구밀도를 줄이고 바간누르, 날라이흐(Nalaikh), 바가한가이(Bagakhangai) 등과 같은 위성도시들을 개발하고 이 도시들의 인구밀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현대식 표준에 부합하는 건물을 건축하고, 새로운 종류의 건축자재 생산을 조성·발전시키고 도시경제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셋째, 주택 수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 ‘주택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수도의 게르(Ger) 구역을 중앙 하수시스템에 연결시키고, 거주민들에게 필요한 식수를 완전히 공급하고 게르 구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여, 점차 주민의 구매력에 대응하여 주택공급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몽골 정부는 울란바토르시의 도로망을 개선하고 공공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울란바토르시의 도로망 개선작업과 도시계획 및 교통정책을 조정하고,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문제를 다루기 위해 ‘스마트(Smart)’ 교통 관리 및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한국이 몽골과 협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신도시 개발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몽골의 도시개발 계획에 참여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 기업 및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몽골의 도시개발 계획에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 전문가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몽골에서 부동산 가격이 약 20% 하락했으나, 금년 가을 무렵에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33) 울란바토르시의 주택공급률이 40% 정도에 불과해 향후 아파트 건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울란바토르 중심지의 아파트 가격은 평당 약 300만원이다.

5. 농업 및 축산업 협력 확대

몽골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차 황무지 개간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국가정책을 수립하여 곡물, 감자, 야채를 완전히 자급하고, 더 나아가 수출까지 도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축 1마리당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축업 농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즉 몽골은 농축산업 원료의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가공기업들을 보다 많이 설립하여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자국의 농축산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³⁴⁾

몽골은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강수량이 부족하여 관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농축산업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지만, 향후 몽골의 농업 및 축산업 협력은 전망이 밝다고 판단된다. 특히 몽골은 지구상에서 생태학적으로 가장 청정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기농 식료품 및 육류제품의 가공 산업이 유망한 국가이다.

그동안 한국과 몽골은 농축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20여개의 한국 기업들이 몽골의 농축산 분야에 약 8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곡물과 채소류 등을 소규모 시험적으로 재배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의 중견 기업 가운데 몽골의 농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몽골에서 상업적인 농목축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 정부는 몽골의 동쪽에 있는 할호골 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255만 달러를 들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헥타르의 시범농장을 설립할 계획이다.³⁵⁾ 특히 이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 국경과 인접해 있어 생산물을 수출하기에도 편리하다. 이 외에도 수도인 울란바토르와 가깝고 교통망이 편리한 셀렝게 지역의 농업개발 사업도 몽골의 식량 자급계획과 맞물려 유망한 것으로 파악되며, 시베리아와 인접해 있어 러시아에 식료품을 수출하기에도 편리한 지역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몽골에서 농업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몽골 할호골 지역과 셀렝게 지역의 유흥지나 개간 가능한 토지를 한국 기업들에게 장기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몽골 정부와 합의를 해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몽골 정부도 이 방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몽골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몽골 농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몽 양국간 농업협력을 추진할 때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저장 및 가공 단계에 이르기까

34) 2008년 2월 몽골 N. 앵흐바야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동몽골 지역 농업개발을 비롯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35) 강임호(2010), 「몽골의 발전전략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간담회 발표자료.

지 종합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몽골이 농기계계의 6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종자와 비료를 러시아에서 공급받아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³⁶⁾ 앞으로 한국산 종자와 비료 및 농기계 등의 몽골 진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09년 기준으로 몽골에는 가축이 4,300만 두에 달할 정도로 목축업이 널리 퍼져 있다. 몽골이 21개 아이막(道)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한 아이막당 평균 2백만 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몽골은 가축에서 나오는 고기, 우유, 양모, 캐시미어, 피혁 등 축산원료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몽골에서 생산되는 양털의 5%만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처분되고 있을 정도로 축산원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몽골 정부는 가축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화시키고 국내 공급 뿐 아니라 해외수출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몽골의 가축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이 유망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갖춘 중소형 공장들이 몽골 진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주로 미국과 호주에서 육류를 수입하고 있는데, 몽골과 검역문제가 해결될 경우 육류 및 육류 가공품을 대규모로 수입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의 육류 검역 및 수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한국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몽골은 자국 축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의 선진적인 검역 시스템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관련 연구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KOICA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외에도 최근 몽골 정부가 가축의 방목 외에 축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가축 사료 생산과 관련된 사업도 유망한 협력 분야라 할 수 있다. 결국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농목축업 분야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민간이 공동의 노력으로 현지 개발 수요를 적극 파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6. ODA 협력 방안

그동안 집행된 한국의 대외원조 가운데 몽골의 비중은 높은 편이나, 한국의 대몽골 원조 규모는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주로 농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 등 몽골의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또한 연수생 초청 교육, 전문가 및 의료단 파견 등 원조 관련 인적교류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상원조인 EDCF 지원 사업 부문에서는 2006년 지원을 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36)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Rossii'skaia gazeta), January 26, 2009.

다. 실제로 한국의 무상원조는 일본과 독일, 미국 등의 무상원조 수준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EDCF 사업은 과거 시행했던 고속도로 건설 및 교통망 구축사업에서 협력 실패를 경험하는 등 향후 새로운 지원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2010년부터 '원조 선진국 클럽'인 DAC의 회원국이 된 한국은 2010년에 10억 달러인 ODA 규모를 5년 후에는 30억 달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국제사회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한국형 ODA 모델을 형성하는가에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대몽골 무상원조 사업은 농촌개발,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부문에 대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동 부문은 몽골에서도 집중 육성 산업으로 선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부문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동 부문에 대한 지원 외에도 한국과 몽골의 강한 유대감 형성과 소프트 파워적 장기 교류 협력을 위한 교육·문화 사업에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례로, 일본은 각종 인프라 구축 및 개발 프로젝트의 아낌없는 지원과 동시에 도서관을 곳곳에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서관에는 엄청난 양의 책들을 구비하여 학생들 및 몽골 국민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어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일본으로의 유학생 유치 및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보건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울란바토르시 병원 재건축 및 신축에도 노력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몽골내 교육센터 건립을 통해 책, 컴퓨터 뿐만 아니라 IT와 연계한 한국어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즉 다양한 E-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에서 유학 및 연수하는 것과 비슷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제조업 및 기술 부문 육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몽골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여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IT 기술교육센터 건립을 통한 교육사업도 진행하여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몽골이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박물관 건립 혹은 이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³⁷⁾ 예컨대 몽골 칭기즈칸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몽골인들이 갈망하고 있는 '칭기즈칸 박물관' 건립 지원 등은 설사 ODA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회적인 지원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몽골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사업을 지원할 경우 광물자원 개발 및 인프라 건설 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이 칭기즈칸 박물관 건설을 지원한다면 한-몽 관계 증진은 물론 신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지혜가 담긴 현지 친화적인 한국형 지원정책의 표본이 될 것이다.

37) 이재영, 「몽골 칭기즈칸대 총장의 소망」, 『서울신문』, 2010. 4. 26.

<참고문헌>

- 강임호(2010), 「몽골의 발전전략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간담회 발표자료.
- 김지호(2010), 「몽골 축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 간담회 자료
- Lkhagvasuren Khugulbuu(2010), 「몽골의 정치, 경제 현황과 한몽 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 간담회 자료.
- 박종국(2010), 「몽골의 전략광산 개발현황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투자정보.
- 심의섭(2009), 「한국과 몽골간의 자원개발 협력」, 한국 몽골학회 발표문.
- 이재영(2009),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전략과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Vol. 19, NO.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영(2010), 「몽골 칭기즈칸대 총장의 소망」, 『서울신문』, 2010. 4. 26.
- 이재영 외(2010),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영 외(2010), 「주요국의 대몽골 경제협력 현황과 한국의 진출 방안」, 『지역경제포커스, Vol. 4, No. 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효선(2010), 「몽골의 자원분포현황과 자원활용방안」, 『몽골학』, 제28호, 한국몽골학회.
-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2008), 『경협 프로젝트와 연계한 포괄적 한-몽골 에너지 협력방안 연구』.
- BMI Mongolia Mining Report Q2 2010.
- FIFTA(몽골 외국인투자무역청), Investment Environment of Mongolia, CD
- Implement Agency of the Mongolian Government (MINERAL RESOURCES AUTHORITY).
-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 comprehensive U.S.-Vongolia Partnership: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oceedings of Bilateral Conference, February 28-March 01, 2005.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Base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Mongolia(Draft), Ulaanbataar, 2007.
- Mongolian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2010), Inspiring Mongolia, Spring 2010.
- Shurkhuu D. (2010), 「Perception and Strategies on Energy Security: The Case of Mongolia and ROK」, 세미나 발표자료, 서울.
- Tsend Baatar(2005), 「Economic Globalization: External Factors of Mongolian Development」,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of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USGS(2009). *Minerals Yearbook, Mongolia*.

Гольман М. И., Президент Элбэгдорж Развьял Мифы, Азии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No. 4, 2010.

Железняков А. С., "Субъекты современного мироустройства: кочевая Монголия," Полис. Полит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No. 4, 2009.

Шурхуу Д., Глобализация и монголо-китайские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6, 2003.

Яскина Г. С., Россия-Монголия-Китай : Проблем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реодоление противоречий ,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экономики, 2009.

20세기 전기 한국 지식인의 몽골 인식 연구 서설

The Introduction to the Study on Korean Intellectuals' Perception of Mongolia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1. 문제 제기

20세기 전반기(20세기 초기~일제 강점기) 국내에서 간행된 각종 잡지에는 몽골에 관한 소개 글과 논설, 기행문, 수필 등 다양한 형태의 글이 실려 있다. 또한 일부 잡지에는 매월 국제 소식이 일자별로 정리·게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몽골 관련 뉴스가 적지 않게 등장한다. 당연하지만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신문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몽골 뉴스가 나온다. 필자가 보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기간 내 잡지 345건, 신문 1768건에 달할 정도로 몽골 관련 기사가 많은 편이다. 이중에는 短信이나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을 소개하는 가운데 몽골이 부차적으로 언급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몽골을 주제로 하는 몽골에 관한 글 또는 기사이다. 물론 당시 잡지나 신문 지상에는 몽골만이 아니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관한 글과 뉴스가 등장한다. 주요국인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美洲와 유럽 그리고 베트남, 인도 등 서남아시아 나라에 관한 글도 의외로 많은 편이다. 조선 지식인들이 이처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일제의 식민 지배라는 어려운 상황 자체가 지식인들로 하여금 주변과 세계에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에게 강탈당한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절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독립운동이나 기타 목적으로 조국을 떠난 國外 거주자들 또한 국내 잡지와 신문의 외국 관련 기사나 소식을 보태는데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국외 거주자 중에는 생계를 위해 고국을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독립운동 또는 어떤 형태로든 국권 회복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를 무대로 하여 활동하면서 국제 정치에 눈을 뜨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를 벗어난 국제적인 시야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잡지에 실린 몽골 관련 글에서 이들이 주로 국제 문제의 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문과 잡지의 외국 기사 증가와 관련하여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다. 몽골 관련 기사를 놓고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일제 또는 일제의 滿蒙 침략과 관련이 있는 것이 많고, 어떤 기사는 명백히 일본을 통하지 않고는 입수가 불가능한 것도 있다. 따라서 역사 해석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식민지 상황이 조선 지식인들로 하여금 국제 소식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 논의할 몽골 관련 기사도 크게 보아 상기한 세 가지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지만, 국제 정세 분석 중 일제의 만몽 침략에 관한 것이 많고, 필진도 중국 등 국외 거주자가 많을 뿐 아니라 내용 또한 13-14세기 고려시대에 관한 것이 두드러지게 많다. 따지고 보면 한민족의 기원이나 우리 민족 또는 언어와 관련하여 몽골이나 몽골족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도 식민지라는 시대적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는 우리 문화가 북방과 관련이 있고, 그 중 특정한 부분이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인식, 따라서 한민족이 상대방에 비해 우월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몽골족의 흥망성쇠나 몽골의 독립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도 당연히 민족 독립에 대한 염원과 관련이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몽골에 관한 사항이 부정적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칭기스 칸과 그 후계자들의 세계 원정을 특기한 이면에는 서구인에 대한 열등의식과 아울러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점에서 20세기 전반기 국내 잡지와 신문에 실린 몽골 관련 글이나 기사는 조선 지식인의 몽골에 대한 인식을 넘어 그들이 주변 정세 및 국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것이 필자가 동 시기 신문과 잡지에 관심을 갖고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이유이다. 후술하듯이 잡지나 신문 기사 중에는 그 무렵 내외몽골에 거주하는 한인의 생활과 독립지사들의 활동을 소개한 것이 있다. 이런 유형의 자료는 해당 지역에서 한인들의 활동에 관한 현지 자료를 찾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 분야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 또한 필자가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다.

물론 몽골 관련 글이나 기사 중에는 흥미위주 또는 논의할 가치가 없는 허접한 것도 없지 않다. 문제는 상기한 일면 ‘有意味’한 글과 이러한 흥미위주의 무가치한 글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어떤 것은 지금 보아도 매우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어떤 것에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오류와 오해가 확인되고, 또 그 중 일부는 그러한 오해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다. 뒤에서 언급할 인종 문제도 그 하나이고, 민족 문화의 기원을 몽골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몽골 라마승들의 여성 편력이나 일부 지식인들의 몽골 여성과의 성적 접촉에 관한 흥미위주의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이렇게 보면 현재 한민족 기원 또는 민족 문화의 기원과 관련한 몽골에 대한 환상, 그리고 대중과 지식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몽골에 대한 편견이 상당 부분 20세기 전반기 조선 지식인들의 몽골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형태로든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일부 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한민족 기원과 문화의 원류에 대한 연구도 올바르게 진행되고, 현대 한국인들이 몽골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 또한 해소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필자가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이다.

오늘 발표는 지금까지 언급한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시론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훗날로 미루고 여기서는 자료의 내용 및 성격 그리고 연구 과제와 방향 등 향후 연구와 관련하여 발표자의 생각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는데 한정하려고 한다. 먼저 자료의 주요 내용을 몇 개의 범주로 나눠 살펴보고, 이어 향후 연구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가늠해 본 다음,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편의상 오늘 발표에서는 신문 기사를 제외하였다.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신문 기사를 당연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지만, 지면의 제약과 준비의 촉박함 때문에 이번에는 잡지에 실린 몽골 관련 글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자료의 주요 내용

20세기 전반기 국내 잡지에 실린 몽골 관련 글은 크게 몽골만을 주제로 한 것과 주변 지역 또는 세계 사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몽골을 거론하는 경우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양적으로 보면 후자가 월등히 많지만, 후자 중에서도 일부는 전자에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자 또는 후자에 상관없이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글의 성격에 따라 다음의 11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1) 몽골의 표기와 몽골리아(몽골인의 땅, 거주지)의 구분

1990년대 이전 한국에서 간행된 기록물과 마찬가지로 근대 국내 잡지에서도 몽골을 ‘蒙古’ 또는 ‘몽고’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당시 잡지에서 몽고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내몽골(중화인민공화국의 內蒙古自治區)을 지칭하고, 외몽골(오늘날 몽골국)을 말할 때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반듯이 ‘외몽’ 또는 ‘외몽고’로 특기하고 있다. 이는 당시 지식인들의 몽골에 대한 관심이 내몽골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지리적 위치로 보아 국외 이주자 또는 활동가들이 먼저 내몽골로 이주하고 거기에 삶의 터전 또는 활동무대를 마련한 결과, 이곳이 곧 몽골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일제의 지배 범위가 만주리아를 넘어 내몽골 동부, 즉 ‘東蒙古’에까지 미치면서 지식인들 역시 이곳을 몽골로 인식하게 된 결과이다. 그런가 하면 몽골리아를 내몽골, 외몽골, 부랴트공화국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쓴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몽골 동부 지역을 동몽고라고 특기한 사례도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고비사막’

을 써서 몽골을 지칭한 점이다. 과거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용례를 볼 수 있는데, 지금도 한국의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를 그대로 답습한 경우도 있다. 이를 테면 몽골 또는 몽골 지역을 고비사막이라고 한다는 뜻이다.

2) 몽골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진단

이 주제는 내용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당시 몽골의 어려운 상황을 전제하고 과거 강성했던 민족이 어떤 과정을 거쳐 몰락하게 되었는지를 논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몽골과 외몽골의 독립 문제를 별도로 다룬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당시 조선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글 전체에 필자의 생각과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 몽골의 상황을 암울하게 그리고 있으며, 그 이유 清朝 지배 시기 라마교의 득세와 청의 라마교 지원 정책에서 찾고 있다. 한편 내몽골 독립운동의 경우 1930년대 중반 이후 탕축 동륜[德王, 1902-1966] 주도하의 南京 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운동을, 외몽골의 경우 1911년과 1921년의 두 차례의 독립을 주제로 한 글이다. 흥미로운 것은 내몽골 지도자 탕축 동륜에 대한 소개에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 있고, 그의 서울 방문에 관한 글¹⁾도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그가 일제의 일정한 영향권 하에 있었고, 그의 지배 지역에 韓人들이 많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독립 문제를 포함한 몽골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한 글은 일부 사실 기술에서 문제가 있지만, 당시 조선 지식인의 몽골에 대한 인식을 넘어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3) 몽골에 대한 편견

몽골에 대한 편견은 부정적 인식, 오해와 오류, 시각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동 시기 잡지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대체로 당시 몽골인들의 생업인 유목과 라마교가 중심 주제로 설정되어 있다. 유목은 ‘원시적인 생업’, 그것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원시적 야만민족’으로 폄하하고, 라마교는 몽골인들을 몰락시킨 주범이고 심지어 ‘몽고의 아편’이라는 말까지 등장한다. 라마승의 여성 농락은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이고, 몽골을 불모의 버려진 땅으로까지 묘사한 글도 있다. 이를 테면 무당 퇴치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그들을 ‘몽고 지방으로 수출하자’²⁾는 막말도 나온다. 심지어 중국인들의 시각을 그대로 따라 ‘몽고족이 漢族을 박해했다’³⁾고 하는가 하면, 어느 변호사는 북경의 감옥을 방문하고 나서 쓴 기행문에서 서장(西藏)과 몽골을 ‘형편없는 곳’⁴⁾으로 표현하고 있

1) 김숙(1939), 「덕왕의 인상, 기타」, 『삼천리』 제11권 제7호.

2) 소제부(1930), 「춘계대청결」, 『별건곤』 제28호.

3) 금진구(1926), 「순문, 황흥의 처음 악수, 중국의 일대풍운아」, 『별건곤』 제2호.

4) 박승빈(1929), 「국제변호사대회에 갔다가, 중국북평에서 개최」, 『삼천리』 제3호.

다.

4) 몽골의 세계 재패

몽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점철된 글과 대조적으로 같은 시기 잡지에는 13-14세기 몽골의 세계 정복을 우호적으로 언급한 글이 적지 않다. 몽골 기마병의 강건함을 특기하는가 하면, 몽골의 군사적 우월성을 신체적 강건함에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보인다. 또한 몽골의 유럽 원정을 특기하고 이를 황인종의 백인종에 대한 승리로 인식하여 아시아 민족의 자부심과 관련지어 언급한 글도 있다. 이는 현대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그 이면에는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복잡한 세계 인식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인에 대한 열등감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5) 오류의 바다

몽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편견과 한 짝을 이루는 것이 상식을 벗어난 오류이다. 이를 테면 스탈린의 고향 그루지야를 ‘바이칼과 외몽고’ 사이에 있다고 하고, 몽골인을 퉁구스계로 오인하고, 몽골어를 러시아어와 비슷하다고 하고, 몽골인의 세계 인종의 조상이라 하고, 유목민이 돼지를 키운다고 하는가 하면 아침저녁으로 거처를 옮겨 다닌다고 하고, 몽골이 아라비아처럼 일부다처제 사회이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승려가 아무데서나 부녀자를 농락하고, 여행 도중 부모와 같은 천막에서 자고 있는 처녀와 성교를 했다는 무용담 등 백번 양보해도 용납이 불가능한 내용이 부지기수다. 이중 특히 남녀 관계에 대한 인식은 현대 한국인에게까지 이어질 정도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오해이다.

6) 인종과 민족 용어의 혼란

20세기 전반기 잡지에 실린 글 중에는 세계의 주요 인종의 하나인 몽골로이드(속칭 황인종)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를 ‘몽고인종’ 또는 ‘몽고종’으로 올바르게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글도 있지만, ‘몽고인’, ‘몽고족’, ‘몽고 사람’ 등으로 오해를 일으킬만하게 번역한 것도 적지 않다. 이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용어와 함께 ‘몽고족’, ‘몽고민족’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접문(接吻), 즉 키스에 관한 글 중에는 “집시 여자와 몽고 여자를 키스를 할 줄 모른다”⁵⁾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몽고 여자’는 몽골 여자가 아니고 몽골로이드(황인종) 여자를 말한다. 일부 한국인들이 지금도 몽골인들을 우리 민족과 동일시하고, 심지어 조상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것

5) 박정월(1934), 「접문연구」, 『삼천리』 제6권 제11호.

도 이러한 오해와 잘못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7) 한-몽 민족 및 문화적 상관성

한-몽 문화 및 두 민족의 상관성 여부에 관한 문제는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질 정도로 역사가 오래 되었다. 그 시작이 20세기 초기인가는 좀 더 연구를 거쳐야 하겠지만, 당시 지식인들의 해당 주제에 관한 논의가 요즘 일부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잡지에 실린 글 중 일부, 예컨대 ‘조선문자’(한글)의 기원을 따지면서 ‘蒙古字’(즉 파스와 문자)를 거론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지만, 상당수는 북방 민족과의 막연한 관련성을 몽골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도 싫든 좋든 한-몽 학자들의 현안 중의 하나인 두 나라 문화 및 민족의 관련성 문제를 올바르게 연구하기 위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8) 몽골의 고려 침략과 지배

20세기 초기 국내 잡지에 개재된 몽골 관련 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몽골의 고려 침략 및 그 지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내용이다. 대몽 항쟁 또는 몽골 지배와 관련이 있는 인물 소개에서부터 이른바 ‘몽고 병란’으로 인한 피해 관련 사항, 한민족의 국난 극복과 관련한 사항, 문화재 피해 등이 중심 주제로 등장한다. 또한 서울 탑동의 13층 탑, ‘몽고풍’의 선구자 소개, 제주말의 몽골 기원 설, 제주 사람 속의 몽골인이 있다는 설, 이성계의 출자의 몽골 관련 설 등 몽골 지배의 직접적인 결과와 관련한 사항이 차례로 소개되고 있다. 대부분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민족자존을 강조하기 위하여 쓴 것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이런 형태의 글이 동 시기 조선 지식인들의 몽골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심어준데 일조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9) 몽골 주변의 국제 정세 보고

몽골 주변의 국제 정세를 다룬 것도 몽골의 고려 침략과 지배 관련 문제만큼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이 문제는 러시아 및 소련의 몽골 진출, 이른바 만몽 문제, 몽-중 관계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단연 많은 것이 1911년 몽골 독립과 1921년 몽골 혁명과 관련한 제정 러시아(후에 소비에트 赤軍)의 역할이다. 그 이유는 식민지 종주국인 일제의 영향과 중국에 거주하던 필자들이 중국 측의 정보를 토대로 몽골 문제를 다룬 결과로 보인다. 몽-러 및 몽-소 관계를 다룬 글 중에는 러시아와 소련의 중앙아

시아 진출, 영국의 아프간 진출 및 티베트 출병을 다룬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중국 변방의 티베트와 몽골이 영국 및 러시아(소련)의 영향으로 분리 독립을 모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만몽 문제이다. 그 이유는 물론 일본의 만주와 ‘동몽고’ 진출 그리고 이곳에 한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몽-중 관계를 글은 주로 당시 중국의 유동적인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변방 문제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크게 몽골과 티베트 문제를 동시에 다룬 글과 만몽에서 몽골인들의 동향을 다룬 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0) 한인 및 독립운동

본 주제 역시 숫자상으로는 몽골의 침략과 지배 관련 글만큼 많이 등장한다. 내몽골의 바얀달라이[白音太來]에서 의열단결사대를 조직하고 조선 내로 침입하여 각 관공서를 파괴하기로 했다⁶⁾는 보고, 여운형의 외몽골 방문기,⁷⁾ 한 여기자의 ‘蒙古自治政府’⁸⁾ 방문기⁹⁾ 등 일부 특기할만한 내용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내외몽골과 露領 거주 한인들의 소식과 생활 실태에 관한 짙막한 단신 형태의 글이다.

3. 향후 연구 과제와 방향

향후 연구 과제와 방향은 잡지에 실린 글의 내용 분석에서 어느 정도 논의되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내용 모두를 단일 주제로 삼기에는 번잡한 측면이 있고, 연구의 원래 목표인 당해 시기 조선 지식인들의 몽골 인식을 정리하는데도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11개 항목을 어떤 식으로든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는 본 발표에서 빼버린 2000건에 가까운 신문 기사 내용에 대한 분석이 끝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문 기사보다는 잡지의 글에 기고자의 생각과 정치적 입장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본다면 전술한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앞으로 수행할 연구 과제와 방향을 가늠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다.

1) 20세기 전반기 국내 및 주변의 국제 정세와 관련하여 조선 지식인들이 몽골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 번째 주제는 1911년 외몽골 독립과 1921년 인민혁명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관

6) 일기자(1923), 「꿈틀거리는 세상」, 『개벽』 제38호.

7) 여운형(1936), 「몽고사막 횡단기」, 『중앙』, 1936. 4.1

8) 뽕족 동륜 등이 일본의 뜻에 따라 1939년 9월 1일 수립한 자치정부로 통상 蒙疆政府라고 한다.

9) 전회복(1941), 「결혼전후, -결혼초일의 일기-」, 『삼천리』 제13권 제12호.

점이다. 대다수 필자들이 두 사건에 대하여 제정 러시아와 소련의 전적인 지원과 영향력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외몽골을 진정한 독립을 이룩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이와 대조적으로 두 사건을 포함하여 몽골의 과거와 현재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1921년 후 사회주의 건설 과정을 우호적으로 소개한 글도 있다.¹⁰⁾ 이들은 제정 러시아나 소련의 몽골 문제 개입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유보한 채 외몽골을 자주 독립을 실현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두 그룹 사이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독립을 실현하는 방법이나 독립 후 민족국가 건설 방향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주제에 대한 검토는 몽골 문제 인식을 넘어 지식인들의 조선 문제 인식을 살피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주제는 이른바 만몽 문제와 내몽골 독립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내몽골 동부 지역, 즉 ‘동몽고’는 만주국 영역에 편입되어 있었다. 식민지 시기 한인들이 이민이나 견학 또는 기타 목적으로 만주국 영내를 방문하고 거기에 정착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 일부는 그 동부 지역(동몽고)으로 흘러 들어갔다. 따라서 당시 잡지에 실린 만몽 문제라는 것은 만주와 내몽골 동부 일대를 말하고, 조선 지식인들이 보고한 몽골, 그리고 몽골 인들은 대부분 이곳 거주민들이었다. 잡지에 실린 글 전체를 놓고 볼 때 단일 주제로는 만몽 문제만을 다룬 專論이 가장 많다. 이는 일제의 만몽 진출에 따른 결과이지만, 아무튼 지식인들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되었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당시 지식인들이 만몽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내몽골 독립운동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제는 땀속 땀 등 의 자치운동을 지원하고 내몽골 서부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한인들이 동 지역으로 진출하고 지식인들 또한 이곳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주제에 대한 연구는 조선 지식인들의 내몽골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을 넘어 만주 및 만주국, 나아가 일제의 대륙 진출을 이해하는데도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주제는 중국의 邊疆의 하나로서 몽골 문제를 보는 지식인들의 시각이다. 이 문제 역시 상당히 빈번히 출현하는 단일 주제이다. 모든 필자들이 몽골, 신강, 티베트를 중국 영토로 보고, 이들이 강대국, 즉 러시아(후에 소련)와 영국의 개입으로 중국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몽골과 신강은 러시아의 개입으로, 티베트는 영국의 개입으로 본국에서 분리 독립을 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바로 당시 중화민국의 변강 문제에 대한 시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선 지식인들이 약자인 소수 민족 입장이 아니라 중국 측 편에 서 있었다고 하는 점이다. 얼핏 보면 반제국주의 입장의 반영인 것도 같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필자들의 영향인 것도 같지만, 분명한 것은 스스로 약소민족의 설움을 겪으면서 또 다른 약소민족의 독립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

10) 이윤재(1922), 「몽고 민족의 독립운동 1」, 『동명』, 제14호; 「몽고 민족의 독립운동 2」, 『동명』, 제15호; 「몽고 민족의 독립운동 3」, 『동명』, 제16호; 「몽고 민족의 독립운동 4」, 『동명』, 제17호. 이 시기 몽골인들의 독립 운동에 대해서는 이평래(2008), 「1911년 몽골 독립과 민족 통합 운동의 초기 과정」, 『동양사학연구』 104, 동(2009), 「1912-1913년 북드 정부의 내몽골 통합 시도와 좌절」, 『중앙아시아연구』 14를 참고.

는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국내 및 주변 정세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2) 독립운동과 몽골 거주 한인의 실태

근년에 일제기 몽골 지역 거주 한인의 실태나 그곳에서 전개된 독립운동 또는 독립지사들의 활동에 관한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¹¹⁾ 물론 본 주제에 관한 한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미주 등지에 비하여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기왕의 연구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선구적 연구로 평가할만하다. 발표자 역시 이와 관련한 소개 형태의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는데,¹²⁾ 그때 본인은 본 주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지적하였다. 몽골 공문서보관소나 20세기 전기에 공간된 자료 중 한국 관련 기록에는 특정 주제에 관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당시 몽골 거주 한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더불어 발표자는 당해 주제와 관련하여 몽골 자료는 물론, 몽골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러시아, 일본, 중국 쪽 자료 확보에 노력하고, 같은 시기 국내 신문이나 잡지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생각은 지금도 유효하고, 오늘 발표 역시 그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비록 앞에서 언급한 본 주제 관련 잡지 기록이 몽골 거주 한인들의 생활실태 파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단신이 대부분이지만, 이는 역으로 현지에서 관련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잡지나 신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오류와 편견에 관한 문제

앞서 언급했듯이 20세기 전반기 여러 잡지에 게재된 몽골 관련 글에서는 몽골과 몽골인, 몽골 문화에 대한 심한 편견과 오류가 확인된다. 그 중 상당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특히 농경민 입장에서 바로 본 유목민에 대한 멸시와 편견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몽골에 관한 오해의 대부분은 사실상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유목과 유목민에 대한 편견이 기본적으로 역대 중국 왕조의 입장을 답습하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각은 우리 문화의 기원을 북방에서 찾으려고 한 근대 지식인들의 노력과 상치되는 것으로 말하자면

11) 潘炳律(2000), 「醫師 李泰俊(1883-1921)의 독립운동과 몽골」, 『한국근현대사연구』 13; 한시준(2002), 「내몽고 지역의 한국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3; 정석홍(2002), 「1910-20년대 몽골지역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3; 양지선(2007), 「한인의 몽골지역 이주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43.

12) 이평래(2003), 「몽골 외무부 소장 1920년대 한국 관련 자료」, 『중앙아시아연구』 8.

자기모순을 범한 꼴이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몽골과 몽골인 그리고 그들이 만든 문화에 대한 오해와 오류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집단이 만든 타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하나의 생계방식으로서 유목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시 몽골인과 그들의 상황을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 여운형의 몽골 인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4) 한민족 및 문화 기원 문제

필자는 오래 전에 한-몽 문화교류를 주제로 하는 비판적인 글을 발표하였다.¹³⁾ 글의 요지는 1990대 이후 우후죽순처럼 쏟아진 한민족 및 우리 문화의 기원을 몽골에서 찾으려는 노력에 대한 비판에 맞춰져 있었다. 그때 발표자는 당시 한국 학자들의 이러저러한 주장이 과학적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同類意識에 입각한 정서적 접근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아울러 발표자는 일부 한국 학자들의 몽골 문화에 대한 접근 태도가 근대 지식인들과 닮은 점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즉 외세의 틈바구니에서 시달리던 지식인들이 민족 문화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기원을 북방에서 찾고, 그 북방이 일괄적으로 몽골로 둔갑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주제와 관련한 현재 한국 학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과정보다 ‘학문적 사업가’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몽골과 몽골 문화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방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몽 우호협력을 증진시키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민족과 문화의 동류의식 확산에 기여한 근대 조선 지식인의 이에 대한 생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발표자는 지금까지 20세기 전반기에 간행된 잡지에 실린 몽골 관련 글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몽골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먼저 잡지 내용을 1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다음, 향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제로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격적인 연구와 주제 및 방향은 오늘 발표에서 다루지 못한 신문 기사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 된 뒤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 발표는 본 주제 연구를 위한 시론이고, 당연히 연구 주제와 방향은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13) 이평래(1999), 「한·몽 문화 교류를 보는 시각」,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소나무.

몽골과 한국 교육협력의 현황과 과제

Sainbilegt Dashdorj (몽골국립대)

본고에서 몽골의 교육 제도 현황 및 변화 과정을 소개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교육협력의 현황과 추이를 다루기로 한다.

1. 몽골의 교육계 변화 과정

몽골은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를 가진 유목민 국가로 알려져 있다. 총 1,567,000 km²의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는 250 만명으로 적은 편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몽골족이 나뭇대로의 배경 지식과 지식 전달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넓은 땅에 흩어져 사는 유목생활 특징상 정착해서 산 민족과는 달리 그 지식 전달이 주로 구전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론보다 실제 삶의 경험과 체험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옛부터 유목생활을 하며 가정 교육을 중시해 왔지만 한편 13 세기 칭기스칸의 아들 어게데칸 때 1233 년에 양진(북경)에서 대몽골제국 청소년국립학교를 설립하여 첫 18 명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정주민족을 지배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익혔다(Naran, D, 2001:37).

몽골에 현대식 교육이 1921 년에 설립된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에르텐수렐, 2005).¹ 사회주의체제가 수립된 이후 몽골은 1950 년부터 4-3-3 제, 1989 년부터 3-5-2 제, 1991 년부터 6-2-2 제, 1993 년부터 4-4-2 제, 2004-2005 년학사년도부터 5-4-2 제로 채택했다가 2008-2009 학사년도부터 12 년제로 전환했다. 1990 년 이전 교육 분야는 국가 총예산의 25%, 국민총생산액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특별 지원 분야였다. 그리고 1990 개방 이전 문맹퇴치율이 96%까지 올라갔지만 시장경제 과도기시 격심한 경제 불안으로 인해 한 동안 6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2008 년 기준으로 다시 97,7%으로 상승했다.

¹ 1921년 인민혁명 이전의 교육은 ‘게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육 형태는 BC 2세기의 유목 국가인 선비 시대에 자기 나뭇의 문자를 가지고 글을 배우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칭기스칸 시대 부터 칸의 자녀뿐만 아니라 백성의 자녀까지도 유능한 인재나 훈장 선생의 문하에 들어가서 글과 수학 문학 천문학 철학 등 여러 분야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17세기 만주 지배시 만주 정책에 따라 라마 승려에 의한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게르에서 몇 명의 아이들을 모아 놓고 그들에게 라마 교의 교리 및 불경들을 티베트어로 외우도록 하는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게르는 오래 전부터 교육의 장이 되었다. 학교가 교육의 장으로 등장한 것은 최초의 초등학교가 설립된 1921년이 다(에르텐수렐, 2005:25).

몽골 정부의 2006 년 제 192 령에 의해 수립된 ‘2006-2015 년 몽골 교육개발 Master Plan’에 의하면 2006-2007 학사년도부터 초등학교 1, 2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2008 년부터 12 년제로 전환하며, 문맹퇴치율을 99%에 이르게 하고, 직업학교 학생수를 56.1%까지 증가시키고, 자연공학과 농업계 학생수를 29.1%에서 45.0%까지 증가시킨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워놓았다. 이러한 전략 계획은 1990 년 개방 이후 대학교들과 초중고등 학교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 동안 초중고 학교들은 학제나 교육과정 내용상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수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대학교들은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겪었다. 먼저 몽골 대학교들과 대학생수의 변화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991 년	2009 년	1991- 2000 년 성장율	2009 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수	14	151	979%	100%
국립학교	14	42	200%	28%
사립학교	-	109		72%
대학생수	20,000	150,326	652%	100%
국립학교	20,000	99,037	395%	66%
사립학교	-	50,878	-	34%

<표-1> 몽골 대학교와 대학생수 증가율.

출처: 몽골교육문화과학부 2009 년 통계 자료.

위 표에서 보면 1991-2009 사이에 국립학교보다 사립학교 수가 72% 증가한 반면에 총 대학생들의 66%가 국립학교로 몰려 있고 교수와 학생 비율이 22:1 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과 비슷하며 선진국들의 16:1 비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인구 10,000 명당 대학교 졸업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 수준에 가깝게 집계되고 있음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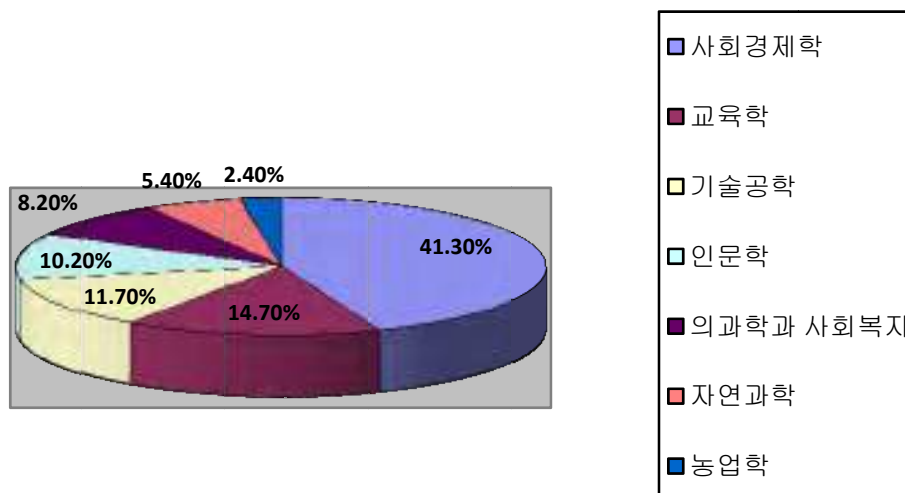
국명	2003	2004	2005	2006	2007
몽골	73	84	88	91	-
한국	127	126	126	125	125
일본	81	82	83	84	83
미국	81	84	87	89	90
영국	101	100	105	106	107
멕시코	34	34	37	40	-
브라질	31	36	41	N/A	43

<표-2> 각국 10,000 명당 대학교 졸업생수

출처: 2009 년 세계은행 교육 통계 자료.

2009-2010 학사년도에 총 141 개의 대학교를 34,211 여명이 졸업하여 작년과 비교하면 1.25 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대학원생(특히 석사과정생) 증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졸업생들의 64.7%가 여학생, 35.3%가 남학생으로 나타났는데 그 비율은 1.83:1 이다. 정부가 앞으로 2015 년까지는 여학생과 남학생 비율을 조정할 목표를 세웠으나 아직까지는 여학생들 비율이 65%를 유지하고 있다.

위 졸업생들의 전공 유형을 살펴보면 사회경제학과 교육학 등 인문계전공자들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올해 졸업생들의 전공을 분야별로 보여 준 것이다.



<그림-1> 몽골 대학교 졸업생 전공별 분포(2009-2010 학사년도)

출처: 몽골교육문화과학부 2010 년 09 월 활동보고서 자료.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아직까지는 사회경제학과 인문학 전공자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문계가 자연계보다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으나 몽골 시장규모와 수요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졸업생들의 취업율을 보면 2009-2010 학사년도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이 된 학생이 40.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지난 5년 통계조사에는 대학교 졸업생 취업율이 32.2-40.6%를 지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상술한 바에 의하면 몽골 교육 분야가 구 소련의 교육 체제를 벗어나 세계 수준의 새로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빠른 시일에 수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그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초중고등 학교 개혁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고등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이 늦어진 바람에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1. 1991년 몽골 교육법이 통과됨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대학교들로 인해 교육계 수요가 채워지긴 했으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대학들을 통해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경쟁력도 저하되었다. 최근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 일환으로 대학교 합병을 들 수 있다².

2. 고등교육기관에 지급되는 국가 예산이 14%에 불과하다. 국가 지원이 적어서 대학교들이 학비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리한 학생수 증가와 저임금과 대우로 인해 유능한 교수인재 유출을 초래했다.

3. 시장 수요와 졸업생들의 전공간의 불일치가 취업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문사회학 전공자들이 자연과학보다 많으며 시장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전공자들이 23%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문계나 자연과학과 기술공학 분야 전공자들의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낫지, 어느 한 분야는 높이고 다른 하나는 낮추는 식의 전략은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졸업생과 일자리 정보 관리 제도가 허술한 것도 취업율 저하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²몽골 정부 2010년 제15령에 의해 국립대학교간 합병 및 일부 학교 인허가 무효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립대학 42개를 16개로 줄였고 현재 2010년 09월 기준으로 112개 대학교 기관 중 국립대학교가 16개, 사립대학교가 91개, 외국대학교 분교가 5개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출처: 몽골교육문화과학부 2010년 9월 활동보고서).

몽골 교육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많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개선되는 과도기의 공백을 외국 여러 나라 교육협력체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교류 활동에 의해 보완 충당하고 있으므로 몽골 교육계 발전에 있어서 대외협력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2. 한국과의 교류 현황

1990년 3월 26일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사회 모든 분야를 걸쳐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그간 정부차원에서 교육분야 협력을 위해 체결한 협정서와 합의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양국 정부간 1991년에 체결한 문화 협정서;
- 양국 정부간 체결한 2001-2004년 문화 교류 사업 합의서;
- 몽골문화교육과학부와 한국교육인적자원부간 체결한 교육교류 사업 합의서;
- 몽골교육문화과학부와 한국 대전시 교육청간 2002년에 체결한 교육기술정보협력 계약서;
- 2010년에 몽골과 한국 교육과학기술 분야 협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2012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간 정부 인사들의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 결과 한국-몽골 공동 학술 조사와 세미나가 각국에서 열리며 한몽 교류협회나 한몽 학회, 한몽 경제협회 등 많은 단체가 생기게 되었고 이 단체 학자들의 왕래가 이뤄지고, 유학생들을 교환함으로써 인적 교류도 활발해졌다. 먼저 교육계 교류협력에 있어 한몽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술기관간 교류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몽골 초중고등학교 한국어 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학교수	학생수
정규 학교	초	3	475
	중	7	1,027
	고		
	소계	10	1502
비정규학교	초	1	40

	계	11	1,542
--	---	----	-------

<표-3> 몽골 초중고등 학교 한국어 개설 현황

출처: 주몽골한국대사관 자료, 2008 년 기준.

순	학교	학생수	국립 / 사립
1	제 68 번 초중고등학교	26	국립
2	제 23 번 초중고등학교	270	국립
3	이흐짜삭 초중고등학교	510	사립/ 09 월 예정
4	Arvis 초중고등학교	42	사립
5	밝은미래 초중고등학교	179	사립
6	울란바타르 초등학교	230	사립
7	MK school(초등)	60	사립
8	울란바타르 초중등학교	101	사립
9	조용머드 샘플학교(초등)	84	사립
10	Iskra 초중고등학교		사립 / 올 09 월 달에 한국어교육예정/
	계	1,502	

<표-4> 몽골 초중고등 각 학교 한국어 개설 현황

출처: 주몽골한국대사관 자료, 2008 년 기준.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몽골 초중고등 한국어 개설 수는 그리 적은 편이 아니다. 그 중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들이 대다수인데, 몽골인 초중고등 학교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교사 확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일들이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에 재한몽골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한 소개가 많지 않다. 서울신민 2008 년 12 월 26 일 김민희 기자의 기사 내용을 보면,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재한몽골학교는 몽골 노동자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 년 12 월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의 도움으로 설립됐고, 선교회 건물 구석에서 8 명의 학생과 함께 시작한 학교는 2004 년 12 월 30 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외국인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2005 년 7 월 1 회 졸업생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3 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 동안 이곳

재한몽골학교에는 약 350 명의 몽골 노동자 자녀들이 거쳐 갔으며 지금도 80 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대학교의 경우 현재 몽골 25 개의 대학교에서 전공과 교양 및 선택과목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수가 총 4000 여명에 달한다. 그리고 전임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는 모두 108 명이다. 이 중에서 한국인은 45 명이고, 몽골인은 63 명이다. 몽골인 전임교수의 수가 10 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6 배 이상 늘었다(권성훈, 2009). 한편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3500 여명의 몽골학생들이 유학 중이며 이것은 외국인 유학생수에 있어 2 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매년 몽골에서 열리는 교육 박람회에 40 개의

구분	초·중등과 정	대학 이상			
		어학연 수	대학 (2 년제 포함)	대학 원	계
유학생 수	201	24	79	27	130

한국대학교들이 참석하여 학생 유치에 열의를 가하고 있으며 경기대학교와 할림대학교 같은 경우 외국인 학생 중 1 위가 몽골인 학생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ainbilegt. D 외, 2010).

따라서 몽골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수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

<

표-3> 몽골 한국인 유학생수

출처: 주몽골한국대사관 자료, 2008 년 기준.

필자가 몸 담고 있는 몽골국립대학교의 경우 1990 년 단국대학교와의 교류 협정서를 체결 이후 현재 36 개의 한국 대학교들과 교류 협정이 맺어져 있으며 한국교류재단(K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고등교육기관(KFAS), 국립국어원, 현대, 대우, 남양주시 등 여러 재단과 NGO 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현재 교수들 중 한국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10 명, 박사학위를 취득한 13 명이고 그 외에 아직 집계되지 않은 다수의 교환 교수와 교환학생들이 있다.

몽골국립대학교 한국인 유학생수가 2010 년 09 기준으로 40 명이다. 그들 중 몽골정부초청장학생이 12 명이고, 교환학생이 9 명, 자비학생이 19 명이다(몽골국립대 대외협력처 내부자료).

몽골국립대 자연과학 분야에서만 해도 10 차례 이상의 공동학술회의가 개최된 데에 60 여 편의 학술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고, 6 개의 공동사업이 추진 중이다. (Battor. J 외, 2010). 현재 공동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생물과학(추위에 강한 식물이나 동물 연구)
- 만년설과 얼음물 연구
- 기후학(아시아 지대 기후 변화)
- 광물학 연구(석탄)
- 고고학
- 인류학
- 고생물학
- 비교정치학
- 비교역사학
- 사회학
- 한국어와 한국학 관련 연구들이다.

양국 교육 분야 협력 관계에 정부 차원의 지원 기관이라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립국어원, 한국문학번역원 등이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0 년대 초기부터 교수들 연구와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며 교육 자료 개발, 한국인 교수 파견,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주чин하여 몽골에서의 한국어와 한국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1991년 설립 이래 전문인력 파견 사업(전문가 의사, 태권도 사범 등), 연수생초청, 봉사단, 각종 프로젝트, 개발조사, 물자공여, 민간단체 지원사업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몽골 한국국제협력단 2010년 제공 자료에 따르면, 1992년에 몽골에 KOICA 봉사단원이 첫 파견된 이후로 지금까지 총 338명의 KOICA 봉사단원이 몽골에서 활동을 하였고 그 중 210명이 학교 및 직업훈련센터, 유치원 등 교육분야에서 활동하였다³.

2007년부터 한국 문화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의 지원에 의해 세종학당이 몽골국립대학교와 울란바토르사립대학교에 개설되어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문화 보급을 위해 협력을 하고 있다. 몽골국립대학교 세종학당의 경우 그 동안 6기의 한국어교육과정을 통해(1기는 대학교 1학기에 해당) 총 555명의 한국어교육과정 이수자들을 배출했으며 몽골국립대학교 사회교육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1996년 한국문학번역금고로 출범한 이후 한국문학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지구촌의 다른 이들과 공유하려는 한국정부의 뜻을 실천해 가는 기관이다. 이를 위해 한국문학 작품과 문화·예술 도서의 번역 및 출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0 현재 1814편의 한국 문학 작품이 26개국어로 번역되는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그 중 몽골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 작품이 총 8개가 있다(전집/선집 3, 시 1, 소설 4).

그외 몽골인유학생협회와 몽골한국학회, 한국몽골학회 등 여러 학회와 민간단체들의 완성한 활동에 의해 두 나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

3. 차후 과제

올해 현대 몽골과 한국의 교류 협력 관계가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20살이 되었다는 것은 벌써 어린 아이의 상태를 벗어나 어른이 되었음을 뜻한다. 그간 교육분야 협력 관계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에

³ 몽골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원들의 전공별 분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금속가공(금속학) 3, 미술교육 1, 미용 3, 요리 3, 유아교육 25, 음악교육 4, 체육교육 2, 특수교육 5, 한국어교육 70, 의사 3, 임업 1, 원예 2, 영양관리 1, 건축 9, 전자 5, 의상디자인 1, 봉제 2, 전기 1, 식품가공 3, 의류직물 4, 자동차 10, 디자인 1, 기계 3, 컴퓨터 45, 경제 1, 마케팅 1, 환경 1으로 총 210명이다.

외적 교류가 많았다면 차후 20 년은 내실 있고 질 높은 교류로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 과제가 속히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1) 양국 상호 보완적 관계 실현을 위해 공동연구 사업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즉, 전문인력간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정부측 지원이 증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들이 공동연구할 수 있는 분야는 역사, 정치, 경제, 어문학, 고고학, 고생물학, 기후학, 공학, 토목 광물학 등 다양하다. 그 동안 언어나 재정 등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일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면 앞으로 양국 공동 연구 사업을 추진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학부과정이나 대학원과정에서 2+2, 1+2 또는 3+2 등 다양한 교환 프로그램과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비교연구와 기타 연구 주제와 연구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학생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그 덕택에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던 반면에 우수한 학생의 유출로 인해 몽골 현지에 남아 있는 학생들이 사기가 떨어지거나 대학원에 학생결원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장기간 유학에서 돌아온 후 사회 적응 문제도 발생하기에 학생교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 1990년 개방 이후의 과도기 때 몽골 교육 분야는 많은 시련을 겪었다. 교육과정내용과 교수진 안정성 문제, 교재와 교육 환경에 있어 변화와 도전의 시간을 보냈다. 아직도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몽골 교육계 제도적 변화와 질적 향상에 외국 관련 기관 우수한 전문 인력 파견 및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결론 대신 다음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본고의 주제에 맞게 몽골 한국 교육교류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소개하려 했으나 논문 한계상 모든 정보를 다 아우르지 못했다. 이에 “몽골과 한국 교육교류 백서”를 만들기를 제안한 바이다.

2) 상술한 모든 교육기관들과 교류하며 관련 정보와 서류문서의 교환과 보관을 할 수 있는 교육교류연구원이나 몽골한국문화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Battor. J, Tsogbadrakh.M(2010), 몽골과 한국 과학교육분야 교류 협력, MAGIKO 주최 한몽 수교 20 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Naran(2001), 몽골제국 교육사, 울랑바토르 T&U printing.

Sainbilegt. D, Serdaram. D(2010), 몽골인들의 해외 이동의 특징 및 향후 전망, MAGIKO 주최 한몽 수교 20 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권성훈(2009), 몽골 대학들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문학연구연구학회 2009 년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에르덴수렝(2005), 몽골의 대학입학전형제도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진안(2001), 한국과 몽골의 문화 및 교육 발전 교류 양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몽골교육문화과학부 자료, 2006-2015 년 몽골국 교육개발 Master Plan.

몽골교육문화과학부 자료, 2010 년 09 월 활동보고서.

World bank 조사 자료, 몽골고등교육과 그 정책.

주몽골한국대사관 자료, <http://mng.mofat.go.kr>

주몽골 한국국제협력단 제공 자료.

몽골국립대학교 제공 자료. www.num.edu.mn

한국문학번역원 자료. www.klti.or.kr



한국몽골가교

SINCE 2007.02.02



설립 이유



- 몽골 정부는 **1990**년대 때부터 한국의 대학교에 학사, 석사, 박사 보내기 시작했다.
- 몽골로 돌아온 뒤에도 졸업생들은 한국에서의 유학 때 맺어진 가까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지속적인 만남으로 두 나라의 관계발전 및 조국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한편으로, 두 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관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한국유학생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이 이 협회 설립에 도움이 되었다.

언제



- 협회 설립자들이 수차례 회의를 한 후
- 2006년 12월 15일 몽골인한국유학생협회를 설립 했으며
- 2007년 2월 2일 몽골법무부 등록증이 발급되었음

구성원



- **MAGIKO** 는 누구까요?
- 우리는 몽골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사회에서 교육받고 모국에 돌아와 본인이 배운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 및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 총 회원 : 약 160명
(몽골체류:120, 한국체류: 40)
- 연간 회비 : MNT 60,000

기구표



회장 및 부회장



- Mr. Erdenebayar. Ch 회장
ROKMON(주) 사장



- Mr. Togbadrakh. M 부회장
몽골국립대학교 대학원장

사무실

Grand Plaza, 14th floor, Room 1401



Meeting room and view



연혁

- 2007.07.04 - 설립 기념 Ceremony
- 2008.05.14 - 식목행사
- 2008.11.22 - MAGIKO 총 회의
- 2009.03.18 - Snow party
- 2009.07.25 - 여름 Picnic
- 2010.02.04 - '한국에서 공부하자' TV program
- 2010.03.18 - 회원 Tax Party
- 2010.05.20 - 우리는 고향을 사랑한다
- 2010.06.01 - 몽골의 후예자들이 많아져라 등...

우리는 전문가들이다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는 도전적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Our vision



- 우리 협회의 비전은 한국 유학, 졸업생들의 친목, 실무적인 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양국간 교육, 과학, 경제, 사회 등 다방면 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www.magiko.mn